

“대북전단금지법 같은 악법, 다시 제정되는 일 없어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위헌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위헌은 물론, 주요 국제인권규범 정면 위반
 반인권·반헌법적 악법 제정 영원히 퇴출돼야
 또 이런 일 생겼을 때 투쟁하는 게 ‘정치 중립’”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인협)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에 대한 입장’을 최근 발표했다.
 북인협은 “지난 9월 26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며 “이번 현재의 판결은 단순히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는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2020년 6월 노동당 부부장 김여

정의 ‘하명’에 따라 불과 6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 위반은 물론, 세계인권선언·국제인권협약 등 주요 국제인권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反)자유·반인권·반민주적 악법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또 “세계인권선언 제19조(표현의 자유)는 ‘판단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margin of appreciation) 성격의 조항’이라며 “각 국가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제19조를

자적으로 해석해, 이를 위반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제인권 표준에 도전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헌법상으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비례성의 원칙 위반이라는 사실이 법조계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 판결과 관련해 우리 북인협은 다음 두 가지 시사점에 특별히 유의하는 바”라고 했다.
 북인협은 “첫째, 두 번 다시 대북전단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특정 정치 집단이 입법권을 악용하여 반인권·반헌법적 악법을 제정하는 행태는 영원히 퇴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들과 입법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을 계기로 독일의 ‘기본법처럼 인간의 존엄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반하는 법률은 애초에 입법을 금지하는 방안과 정책을 적극 검토, 입법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북인협은 2020년 6월 4일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불과 5시간 만에 청와대의 ‘입법 발언’이 나오고, 이튿날 6월 5일 김홍일 의원(당시 민주당) 등 21인이 즉시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추진하게 된 경우에 대해, 다시 말해 북한 체습독재정권의 사주에 의해 대한민국 자유민주 헌법이 훼손된 전 과정에 대해, 향후 수사 당국이 수사를 진행하는지 여

부를 국민과 함께, 세계 시민과 함께 지켜 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한 통일부·외교부 등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반성과 책임 여부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북인협은 “둘째, 정치 중립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며 “일부 정치 세력은 북한인권 운동가들에게 이른바 ‘정치 편향성’을 거론했었다. 이는 인권에 대한 기본 인식이 안 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인권은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민족·국가·정치적 입장·계급·빈부 등을 초월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근본적으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인권단체들에게 ‘정치 중립’이란 세계

인권선언·국제인권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입장을 의미하며, 동시에 대한민국 자유민주 헌법을 수호하는 입장을 말한다”고 했다.
 북인협은 “다시 말해, 북인협은 향후 특정 정치 집단이 또 국제인권규범과 자유민주 헌법을 훼손하려 할 경우, 가만히 있는 행위가 ‘정치 중립’이 아니라 이를 반대하고 투쟁하는 것이 ‘정치 중립’ 입장을 분명히 못박아두는 바”라고 했다.
 끝으로 “북인협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에 즈음하여, 정치인들이 국제인권규범과 자유민주 헌법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향후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관련기사2면 김진영 기자

“교계 이상주의자들의 무책임한 종전선언 주장, 안타까워”

한기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국군의 날 기념 성명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연) 대표회장이자 월남참전 유공자인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담임)가 국군의 날(건국 75주년) 기념 성명을 발표했다.
 권 목사는 “제75회 국군의 날 시가행진 때, 건장한 군인들의 신장과 최첨단 장비를 보면서 선조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조상들의 피의 결실을 보며 과거 역사를 회상했다. 해방과 건국 이후 6.25 전쟁 때 탱크와 포탄이 없어 후퇴를 거듭하고 한탄강, 한강, 낙동강까지 핏물을 흘려야 했던 날들을 상상해 보았다”고 했다.
 이어 “당시 전쟁은 양심도 양보도 의리도 없고 대화와 이혼은 부재했으며 오직 힘만이 존재했다”며 “예전의 군장이 이제는 철갑옷을 입은 장갑차, 자주포로 발전했다. 위풍당당하게 행진하는 모습 속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안보 의식과 자세가 보여 안도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그는 “6.25 전쟁 후 국군은 M1 소총을 사용하다가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M16으로 무장했다. 베트남에 파병되어 실전을 경험한 32만 명의 군인들과 5,000명의 전사자가 흘린 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심이 군사 경제 대국의 씨를 심었다”며 “사사건건 반대를 일삼는 이들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보호로 위기 때마다 나라를 지켜왔다”고 했다.
 이어 “6.25를 경험한 사람들은 원수를 친구로 삼고, 정작 친구는 외면하는 지난 정권을 보고 탄식했다”며 “그들 중에는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하는 오늘의 투철한 안보 의식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이들이 많다. 인공기만 보면 6.25의 악몽으로 밤잠을 설친 노병들이 세월이 밀려 세상을 떠났다. 그 뒤를 따라 월남에 참전하여 자유를 지키고 피와 땀, 생명을 바쳐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고 경제 발전의 초석을 놓은 이들도 점점 세상을 떠난다. 참전유공자를 대우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권 목사는 “전쟁의 현장을 보지 않으면 포, 비행기, 군함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다”며 “전사의 무기는 생명이고 승리와 직결된다. 몸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의사와 약과 의료장비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과 같다”고 했다. 또한 “군대는 명령에 죽고 사는 곳이며 생명을 담보하여 서약을 한다. 군대는 통수권자의 애국정신과 자유·평화 사상이 절대적”이라며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사용하는 사람에게 안보 의식이 없고, 자유를 지킬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그는 “전쟁은 강자만이 막을 수 있다. 막강한 군대와 무기를 보유하고, 정신 무장과 단합한 나라가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며 “다행히 현재 우리나라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의 소중함을 알고, 국민을 주인으로 알고, 군대의 사명을 아는 균형 잡힌 지도자에게 현역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권 목사는 “목회자이자, 월남참전유공자로서는 교계의 이상주의자들이 무책임하게 종전선언이나 전쟁 없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많다”며 “아주 소수이지만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고 성경적 세계관이 없는 무늬만 목사, 무늬만 성도인 이들을 경계한다. 이에 더해 공산주의까지 용납한다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 할 수 없다. 그런 이들이 있다면 더 이상 한국교회 이름을 팔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몇 년 동안 종교를 경시하고 자유보다 사회와 경제를 통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법과 제도들이 있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권 목사는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10년 만에 이루어진 시가행진은 애국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건국 75주년을 축하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육해공군의 지도자와 장병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모아’ 지성호 의원이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저지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지성호 의원실

지성호 의원, ‘中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 국회에 제출

국민의힘 의원 34명 동참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저지 결의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34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국경 개방으로 중국에 억류 중인 2,600여 명의 강제송환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공문화하기 위한 여당의 움직임이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지난날 20일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 내 탈북민의 석방을 위한 당·정·협의 최선의 노력을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읽힌다.
 결의안에는 국회가 ‘한법에 명시된 우리 국민인 국외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안전과 헌법적·국제법적 기본권을 수호할 것’과 ‘향후 발생하는 모든 국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국이 △산민지위협약 △고문방지협약 △사회규약 등 국제법을 준

수하고,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성호 의원은 “국외 북한이탈주민도 한법에 명시된 우리 국민인 만큼, 2,600명 국민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월담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지성호 의원은 지난날 1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IPAC(對중국 의회간 협의체) 정상회의에 참석해 30개국 회원국에 호의를 가지는 ‘강제송환 저지’ 이행 결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39층, 대전역세권 개발 최대 수혜지!
 대전 국가산업단지를 2호선(계획)으로 한번에
 자이르네의 이름으로 변화하는 대전역세권과 함께 고품격 주거생활을 선도하겠습니다.

대전스카이라이프네

4억대 특별혜택가!

인동역(계획)까지 도보 약 5분 거리
 KTX대전역 도보 약 10분 거리

전세대 전용 84㎡ 문의 전화 1670-1512

경 대전역 미래형환승센터 시범사업 선정

Xiirn 대전스카이라이프네

- 전세대 84타입 아파트
- 1군 브랜드 대전 마지막 4억대 상물
- 방문 상담시 제주도 여행상품권 증정
- 대전2호선 인동역(계획) 2024년 상반기 착공 예정
- 중도금 무이자

전단 지참 후 홍보관 방문 상담시 제주도 여행상품권 증정

전세대 전용 84㎡ 문의 전화 1670-1512

경 대전역 미래형환승센터 시범사업 선정

시행사 true friend 한국투자 부동산산업 | 시공사 W 워너프로퍼티(주) | 주관사 Xiirn 자이 S&D

※ 본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홍보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의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는 입찰명세서의 소위 및 관련 법규 제2조와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공공주택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4항 제2호에 따라 적용합니다. ※ 본 홍보물 상의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은 안 허가 과정까지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입주자모집공고 및 홍보관을 방문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교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환영

성명 통해 밝혀



한교연(대표 회장 송태섭 목사(사진), 한교연)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환영한다”는 성명을 27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 법은 문재인 정부 때 북한 김영정이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졸속으로 만든 악법이었다. 오죽하면 ‘김영정 하명법’이란 말까지 나

왔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이 대한민국의 헌법 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하고 명백한 침해에 있다”며 “누구보다 인권을 중시한다는 문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을 외면한 채 3대 세습 독재정권에 굴종해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수치”라고 했다.

이들은 “당시 정부와 여당은 이 법의 제정 이유에 대해 접경지 주민의 안전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위협에 굴복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자유를 차압당한 북한 주민에게 외부의 소식을 알리고 쌀과 달러, 성경을 비밀 풍선에 실어 보내는 것이 우리 국

민의 생명과 나라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그런 북한의 으뜸상에 벌벌 떨면서 북한이 사기는 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주권 포기, 안보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또한 “이 문제는 유엔 등 국제인권 기구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심각한 사례로 보고돼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대북 굴종에서 비롯된 ‘대북전단금지법’ 졸속 입법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이 법에 부당한 피해를 본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운동가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우리는 이런 졸속 악법에 대해 현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기까지 무려 2년 9개월이나 걸렸다는 것 또한 지극히 비정상이라고 판단한다”며 “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는데 이토록 뜬금없이 돌이켜 보지 않고 그 피해를 복구하기가 더 어렵다”고 했다.

한편, 한교연은 “지금 중국에는 탈북민 2600여 명이 체포돼 구금상태에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폐쇄됐던 북-중 국경이 개방되면서 언제든 북한 요구에 따라 강제 북송될 심각한 처지에 놓여있다”며

“이들이 북한에 강제북송된다면 국가반역죄가 적용돼 잔혹한 고문과 형벌에 처해질 것이 뻔하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정부는 중국 정부가 이들을 국제법에 따라 정치적 난민 지위를 부여해 모두가 원하는 나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정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한교연회와 성도들은 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며, 이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도록 국제종교인권기구 등과 연대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한교연회 일부 교단들이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하며 ‘종전선언 평화 협정’ 체결 캠페

인을 진행해 한교연회에 큰 우려를 산 바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노리는 북한과 국내 주사파 세력이 한결 같이 주장해온 내용으로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가 저들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런 자들에 동조해 온 한교연회 교단은 각성하고 회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그런 점에서 최근 예상 통합신임 총회장이 WCC가 주장해온 종전선언과 미군철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만사지탄의 감이 있으나 환영하며, 다만 총회장 개인 의견인지, 교단의 공식 결의인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더 이상 한교연회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사필귀정” 北인권 단체들,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환영

현재 판결 일제히 반겨... “반헌법적 입법 응징” “법치 살아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26일 위헌 판결을 내리자 북한인권 단체 및 관계자들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측은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은 김영정 하명법이라고 불리는 문제

인 정부의 굴종적인 반국가적인 입법이자 헌법상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입법에 대해 응징한 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 제라도 국가적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선언해주신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립니다”

고 덧붙였다.

해당 헌법소원을 냈던 단체들 중 한 곳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만사지탄은 있지만, 사필귀정으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한변은 “대북전단금지법은 2020년 6월 4일 북한 김영정의 요구에 문재인 정부가

굴종적으로 응하여 2020년 12월 14일 다수의 횡포로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고 12월 29일 공포한 김영정 하명법이었다”며 “이 법은 명확성의 원칙(죄형명정주의), 과잉금지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국제인권규범(자유권규약)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북한주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법이었다”고 했다.

탈북자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와 쌀 한톨이라도 보내겠다는 탈북자들의 마음이 바탕이 된 것인데 이걸 불법이라고 하는 건 다수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로밖에 볼 수 없었다”며 “사실상 북한 김영정의 하명에 따라 만든 법이었

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렇기에 정당한 판결을 받게 되면 무조건 이 법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 나오리라 믿고 있었다”며 “탈북자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있다는 걸 느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고 했다.

대북풍선을 통해 북한에 성경을 보냈던 한국 순교자의 소리 CEO 에릭 폴리 목사는 “풍선을 통해 성경을 포함한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 일체를 금지했던 대북전단금지법이 오늘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했다.

폴리 목사는 “헌법재판소는 풍선보내기 외교관이나 정치인이 아닌 현지 경찰의 유연한 조치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에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며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현지 사법당국 및 지역 사회와 상호 존중하는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조용하며 정확하고 합법적인환경적인 방법으로 풍선을 통해 대북 성경 보내기를 진행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이었음을 확인해준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늘 해왔던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폴리 목사는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법을 존중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Shinhan

좋아하는 책들을 마음껏 볼 수 있어 행복해요

아름스 모여라!
535개 아름스 도서관으로!

#신한카드 #아름스도서관 #꿈 #무한가능성 #상상력 #너희들이미래다 #금융으로일상을아름게

책과 함께 꿈꾸며 성장하는 아이들 모두가 No.1입니다

신한카드가 세상의 모든 작은 No.1을 응원합니다

신한카드 아름스도서관 아동·청소년이 마음껏 책을 읽고 자신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도록 국내외 총 535개의 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경험하도록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카드가 응원합니다

Lead by 신한카드

수잔 솔티 “자유 앗아갔던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판결 환영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26일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미국인으로서 북한인권 운동에 앞장서 온 수잔 솔티(Suzanne Scholte) 북한자유연합 대표(사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솔티 대표는 이번 현재 판결에 대한 본지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이 따라야 할 국제조약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들은 문재인 정부가 그

의 시민권을 박탈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그들의 자유를 앗아갔다”고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던 대북전단금지법은, 당시 정부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요구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김영정 북한 노동당 제1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담화를 발표한 후 이 법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대북전단금지법을 ‘김영정 하명법’으로 부르기도 했다. 솔티 대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의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

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그가 선택한 다른 매체를 통해 국경을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을 찾고, 받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한편, 솔티 대표는 최근 폐막한 제20회 북한자유주간 참석을 위해 방한하기도 했다. 당시 열렸던 한·미일 NGO 대표단 연석회의에서 솔티 대표는 “대북전단 이 불법이라고 말한다. 저는 불법이라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 생각한다.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고 어떻게 북한 주민들이 자유사회의 소식을 알겠는가”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개천절, 흥익인간 이념 실천해 지구촌 평화와 상생을”

살림나비, 2023년 개천절 논평

살림을 꿈꾸는 나비행동(살림대표 김영환 박사, 이하 살림나비)이 2일 발표한 2023년 개천절 논평에서 “흥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하여 지구촌의 평화와 상생, 자유와 행복의 새로운 하늘을 열어가자. 열린 공존의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통합과 남북의 평화로운 교류를 실천하자”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동북아 평화의 나라로서 자신의 국가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며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고,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선포되고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황제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주인이 되는 나라”라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은 미국의 지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소련을 날 리시아는 북한을 점령하여 북한에 김

일성 독재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1950년 6월 북한 공산군의 기습침략에 의하여 발발한 한국전쟁에 의하여 낙동강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통하여 자유한국을 지켰다”고 했다.

또한 “1953년 휴전의 대가로 미국과 맺은 한미동맹으로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해에서 국가 기간산업을 일으키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선진국가 대열에 서게 되었다”며 “개천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살림나비는 “한국교회는 흥익인간 이념에 기독교의 이웃사랑 정신을 붙여넣어 대한민국이 세계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기여해야 한다”며 “이웃 사랑은 그 속에 흥익인간 이념을 갖고 있다. 이웃 사랑은 온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한 가

족이라는 정신을 갖고 있다.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 이웃 사랑은 ‘네가 먼저 이웃을 대접하라’는 황금률(the golden rule)에 의하여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진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등 신흥국가의 독립과 평화를 위하여 도와야 한다. 2023년 9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선언한 바 같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자유연대를 위하여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리고 세계의 신흥국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한국의 경험을 들려주며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이 제3세계의 독립과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평화의 국가가 되도록 기도하고 이러한 국제적 인물이 나오도록 신앙인력과 인문교양 교육에 힘쓰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순조로웠던 교단 통합… 한국교회에 ‘연합’ 메시지 될 것”

[인터뷰] 예정 합동개혁·개혁 통합, 첫 총회장 정서영 목사

교회 수 4천여 개 중대형교단 탄생
분열 거듭한 교계에 ‘연합’ 이정표
두 교단, 오래 교류…보수적 신학 노선 같아
본격 대화 2~3개월 만에 합쳐, 하나님 은혜
교단, 사람 아닌 조직·시스템으로 운영돼야
‘개혁’ 이름의 다른 교단들과 통합에도 노력

예장 합동개혁과 예정 개혁이 최근 ‘합동총회’를 통해 교단을 통합하고 ‘예장 개혁’으로 새 출발했다. 두 교단은 ‘합동선언문’에서 “신학과 신앙이 같고, 특별히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총회를 합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단의 정체성이 같다면 굳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통합에 따라 교회 수 4천여 개의 중대형교단이 탄생했다. 교계에선 분열을 거듭해온 한국교회에 ‘연합’이라는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합된 교단의 첫 총회장으로 취임한 정서영 목사는 취임사에서 양 교단 출신 교인들을 향해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개혁교단이 한국교회를 이끄는 좋은 교단으로 발전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향후 예정 개혁총회가 ‘교단 통합’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독교일보는 합동개혁 총회장이었다가 이번엔 통합 총회장이 된 정서영 목사를 만나 교단 운영의 비전 등에 대해 들었다. 아래

는 그와의 일문일답.

—예장 합동개혁과 예정 개혁의 교단 통합을 논의하게 된 계기가 있나?

“두 교단은 옛날부터 교류가 많았다. 교단의 신학과 노선이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각자가 가진 장단점이 있었는데, 합동개혁 측은 교회 수는 더 많았지만 정규 신학교가 없었다. 반대로 개혁 측은 인가받은 학교인 수도권제대학원대학교가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단 통합 논의가 진행됐던 것 같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면 그 이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 모두 공감해서인지 통합 과정은 굉장히 순조로웠다. 본격 대화를 나눈 지 2~3개월 만에 교단을 합치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다.”

—두 교단의 물리적 결합은 이뤄졌지만, 진정으로 한 교단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교인들에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앞서서도 이야기 했지만, 이미 오랫동안 교류해 왔었고, 교단의 색깔이 비슷했기



정서영 목사 ©김진영 기자

때문이다. 문제는 교단의 지도자적인 목회자들이다. 두 개의 교단이 하나가 된 만큼 교단 운영이나 행정 등에 있어 당분간 조정하고 조율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목회자들이 서로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며 수용해야 한다. 이는 총회장 취임사에서도 강조한 부분이다.”

—통합한 교단의 첫 총회장이 되셨는데, 앞으로 교단 운영에 있어 어떤 원칙과 비전을 갖고 있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최근 신앙적 입장문을 발표했다. 예정 개혁총회도 그 내용에 입각해 운영할 것이다.”

정서영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이기도 하다. 정 목사가 언급한 한기총의 신앙적 입장문은 지난 9월 25일자로 발표했다.

다. 당시 한기총은 “한기총의 정체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한기총의 미래에 대해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이에 한기총의 입장을 확실하게 선언한다”고 입장문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기총은 이 입장문에서 △WCC(세계교회협의회)와 WEA(세계복음주의연합)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를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칼 운동 △동성애를 철저히 배척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음주의적 신앙 △대한민국의 안전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교단 행정이나 제도 등에 대한 방향성이 있나?

“큰 틀에서의 방향은, 교단이 사람이 아닌 조직과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교단도 건강해지고 교회들도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목회와 신앙생활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교단 통합이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까?

“과급력을 갖는다. 알다시피 한국교회 교단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분열은 대부분 신학·신앙적이지 아닌 인간적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은 신앙고백을 하는 예정 합동개혁과 예정 개혁이 조건 없이 통합했다. 연합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본다.”

—예장 개혁총회가 한국교회에서 어떤 교단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나?

“교단 통합으로 인해 규모적으로도 커진 만큼 한국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것든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고 싶다. 개혁 교단은 뿌리 깊은 정통성 있는 교단들 중 하나다. 그 이름에 걸맞게 개혁에 앞장설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부흥에 일조하는 교단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또 현재 ‘개혁’이라는 이름을 가진 몇 개의 교단들이 있는데, 다 같은 형제들이다. 그들과 통합하는 일에도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나?

“한국교회가 안팎으로 위기 가운데 있다. 지금 이 상태로는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야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심정으로 개혁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목회자들의 변화가 절실하다. 목회자들이 완벽하게 낮아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거듭나야 한다. 저를 비롯해 예정 개혁총회 목회자들부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항상 애쓰며 노력하겠다.”

김진영 기자

◆ 정서영 목사

개신대학원대학교(신학석사)와 서울기독교대학(Ph.D.) 등을 나와 한국교회 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세계총)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총신중앙교회 담임,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표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예정 합동개혁 총회장이기도 했던 그는 최근 예정 개혁과의 합동총회에서 통합된 교단의 첫 총회장으로 취임했다.

‘낙태 종식’ 위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11월 5일까지 진행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주최 측 제공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주최 측 제공

“모두가 태어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제 낙태 종식을 위한 국제 기도 운동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40 Days for Life)’가 지난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40일간 서울 중구 명동 성당 인근에서 진행된다. 이 캠페인은 개신교 천주교 등 전 세계 64개국 기독교인 100만여 명이 동일한 기간 및 기도 제목을 갖고 금식과 기도로 낙태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지역에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평화적인 기도 운동이다.

2004년 미국 텍사스에서 4명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미 전역과 세계로 확대되며 현재 64개 민족, 국가에서 진행됐다. 지금까지 2만여 명의 생명이 낙태로부터 구조됐다. 132개의 낙태 지원 시설 폐쇄 및 247명의 낙태 시술 종사자들이 직장을 그만 두는 결과도 얻었다.

한국에서는 2021년부터 개신교계와 천주교계 공동대표가 함께 시작했다. 개신교계 대표는 태아생명존중 운동 단체인 ‘아름다운피켓’의 대표인 서윤화 목사가 맡고 있다.

올해 참여를 희망한 개신교계 단체는 온누리교회, 오희교회 등 대형 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대사회위원회, 그리고 일본과 미국 등 여러 한인교회에서 함께 동참하고 있다. JYM(캠퍼스선교단체), 버금아트미션, 생명인권학부모연합회 등 단체가 동참한다.

특히 이번 행사를 앞두고 최근 ‘40 Days for Life’ 국제 디렉터인 로버트 커훈(Robert Colquhoun)이 방한해 개신교와 천주교 리더들을 만나 한국 기도 운동을 독려했다.

로버트는 “낙태 종식을 위한 이 국제 기도 운동은 현재 미국과 유럽 지역 등 기독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라며 “기독교 비율이 높은 한국에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생명을 위해 함께 운동을 시작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미국 본부에서는 한국을 아시아 지역에 이 운동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라고 보고 한국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윤화 목사는 “과거 산아제한 정책부터 시작된 낙태 문화는 수많은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렸고 그 결과 진리가 무너져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는 황폐하고 저주받은 땅을 만들었다. 지혜로운 농부라면 저주받은 땅에 복음을 씨를 뿌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땅을 정화시키는 것을 먼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느 정도의 주수의 아가들까지 합법적으로 죽게 될 개정안이 올라갈 지금, 모든 임태된 태아들이 살 기회를 얻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 운동은 특별한 마음을 받은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태어날 기회를 먼저 받은 모든 자들이 모두가 태어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땅히 동참해야 하는 운동”이라고 전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게시판의 개신교 기도문 파일을 다운받아 가정에서 40일간 기도하고, 가능하다면 명동 현장 릴레이 기도(1시간 단위)를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산부인과가 많은 현장에서 기도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번 가을 기도 캠페인이 진행되는 현장은 명동 성당 앞 명동농협지점 건너편이다.

문의: <http://40days.forlife.or.kr>, 02-703-4620(아름다운피켓) 김진영 기자

명륜진사갈비가 New 버전으로 **확** —! 바뀌었습니다!

MYEONG RYUN JINSA PORK RIBS
명륜진사갈비
명륜진사갈비 1인분 가격에 돼지갈비, 삼겹살, 목살, 닭갈비, 프렌치릭, 별집떡대기까지!
모두 무한!

갈비 먹고 살림장만 하세요!

1등 신선 살림장만 지원 (일천만원 상당) | 2등 시몬스 퀸 침대 | 3등 자코모 소파 | 4등 한생 6인용 식탁 | 5등 명륜진사갈비 상품권

명륜진사갈비는 1년내내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www.명륜진사갈비.kr에서 NEW버전 가맹점을 확인하세요!

“입다 딸의 희생, 폭력저항과 공동체 평화·화해 위한 자발적인 것”

배희숙·이미숙·김문경 교수, 제116회 성서학연구원 심포지엄서 발제

장신대성서학연구원(원장 이은우 교수)이 최근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 1층 국제회의장에서 ‘회갑을 맞은 여성 신학자들을 통해 배우는 성경의 역동성과 다면성-입다와 에브라임에서 요한까지’라는 주제로 제116회 성서학연구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배희숙 교수(장신대 구약학)가 ‘입다의 서원에 대한 새 관점: Antanacsis(삿 10-11장)’ ▲이미숙 교수(장신대 구약학)가 ‘에브라임 족보와 정착전승의 의미(대상 7:20-29)’ ▲김문경 교수(장신대 신약학)가 ‘요한일서의 구원론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입다 딸의 희생, 폭력에 저항하고 공동체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기 위한 자발적인 것”

먼저, 배희숙 교수는 “사사기 10-11장에 따르면 입다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후, 전쟁 직전 야훼께 한 서원에 따라, 무남독녀를 반제로 바친다”며 “이와 관련하여 입다는 오늘날 주석에서 대체로 부정적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상태에서 한 서원은 어리석고 경솔하고 불필요하며, 야훼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자기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망의 표현이고, 또 딸을 반제로 드린 것은 율법은 무시하면서 자신의 말에는 충실함을 보여주는 증거”

라고 했다.

배 교수는 “입다 이야기에 대한 해석의 대부분은 입다의 서원과 그 성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러나 적지 않은 주석가는 성서 본문이 입다의 서원과 반제에 대하여 논쟁적 어조를 띠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오히려 본문은 그의 딸이 외동딸이자 처녀라는 점(11:34b)과 입다 이야기 앞뒤에 있는 ‘소사사’ 목록(10:1-5; 12:8-15)에서 다자녀를 강조함으로써 입다의 비극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암몬 왕에게 한 담화(11:12-28)에 나타난 입다의 외교적 노력은 야훼에 대한 입다의 헌신과 신뢰를 드러낸다”며 “특히 야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는 구원하지 않겠다’(10:13-14)는 결정을 반복하게 한 이유로, 또는 장로들이 입다를 ‘머리가 지팡이’라는 야훼의 인정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사사기 10-11장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문학적 특징 중 하나는 밀접하게 관련된 표현들이 서사의 일관성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첫째, ‘야훼의 전쟁 개입을 말하는 양식 ‘나만 바야’는 입다가 장로들에게 한 말에서 ‘머리가 되는 것의 전제 조건’이고(11:9b) 또 입다가 야훼께 한 서원에서 반제를 드리는 조



제116회 성서학연구원 심포지엄 참석자 기념 사진. ©장신대성서학연구원

건”이라고 했다.

또한 “둘째로 입다가 돕 땅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암몬 족속과 싸우기 위한 것이었으며(11:9a) 이는 백성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므로 입다가 전쟁에서 ‘무사 귀환’ 하는 것은(11:30) 백성과 맺은 합의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더불어 “마지막 셋째로 입다가 야훼께 서원한 내용인 ‘맛이하러 나오다’는 구문(11:31)은 입다의 딸이 아버지를 맞이하려 나올 때(11:34)도 쓰임으로써 서원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나타낸다”며 “그러나 ‘맛이하러 나오다’라는 동일한 표현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언어적 및 주제적 연결은 입다의 서원을 장로들과

백성과 맺은 언약에 비추어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배희숙 교수는 “야훼께서 전쟁에 개입하신다는 조건에 따라 입다는 한편으로는 백성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야훼께 매여 있다”며 “이것은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를 반대하는 자들을 반제로 바치겠다는 입다의 서원을 그 자체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야훼의 입재 앞에 체결한 합의에 비추어 인식해야 함을 가리킨다”고 했다.

배 교수는 “입다의 반제 서원은 전쟁 승리를 대가로 한 것이 아니라 계약 조건을 거부하여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서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만 그녀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녀는 먼저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집에서 나오으로써 아버지의 서원에 대한 보복 성격의 인신반제를,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게 하시며 영토를 수호하고 확장하게 하신 야훼를 찬양하는 제사로 변화시킨다”며 “이야기의 흐름에 따르면 입다의 딸은 반제 희생물이 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입다 딸의 희생은 가장자 사회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폭력에 저항하고 공동체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기 위한 자발적인 것이었다”면서 “이스라엘의 딸들은, 드보라가 아엘을 기억한 것처럼, 입다의 딸의 희생을 가리며 기억한다”고

했다.

◆“에브라임 족보, 과거의 역사적 전통을 변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지 통찰력 줌”

이어 두 번째로 발제한 이미숙 교수는 “오경에서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 그의 장자권을 계승한 인물로서 야곱의 유언에서 유다 지파와 우위를 차지하거나 경쟁할 유력한 지파로 소개된다(창 48:8-20; 49:22-26)”며 “야곱은 아브라함 때부터 받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요셉에게 전하며 형제보다 세째 성을 하나 더 상속해 준다(창 48:4, 22)”고 했다.

이 교수는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야곱의 장례식을 가난한 땅에서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언에서 출애굽과 땅 약속을 상기시키며 상징적으로 그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고 했다(창 50:1-14, 22-26)”며 “요셉 지파가 초기 이스라엘 정착 역사에서 기여한 바는 북왕국 멸망으로 잊혀졌으나 포로귀환 후 역대기 기자에 의해 새로운 정착 전승과 해석으로 에브라임 족보 안에서 소환되었다”고 했다.

또 “가드 침탈 사건과 세에라의 건축 활동은 초기 이스라엘 정착 역사에서 보여준 에브라임 지파의 노력과 공헌을 상기시키려는 역대기 기자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숙 교수는 “두 지파의 영토 목록에 대한 분석은 그것의 출처로 알려진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본문과 비교해 볼 때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 범위가 더 확장되었으며 ‘아후자와 ‘베노트’같은 용어들은 에브라임의 영토가 더 주의 깊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므낫세 영토 경계는 가나안 주민들의 미정복 성읍들을 완전하게 정복한 이후 므낫세의 북쪽 경계선으로 새롭게 해석되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족보와 지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본 결과는 과거 에브라임 지파의 성공적인 정착 역사를 재구성하거나 회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귀환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구상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여겨진다”고 했다. 이어 “역대기 기자의 페르시아 시대 에

후드의 영토 범위를 가능한 한 넓히고 북부 지역을 포함하는 ‘은 이스라엘 땅’을 제시하고자 했는지 모른다”면서 “역대기 기자의 이념적 차원은 평범한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관심으로 이끈다. 에브라임 족보는 세에라를 통해 가장자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의 문제에서부터 예루살렘 중심의 포로귀환 공동체로부터 배제된 사마리아 공동체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살아온 남아있는 지역 주민들까지 그들의 다양한 소리를 듣게 해준다”고 했다.

아울러 “에브라임 족보는 현재의 독자들에게도 과거의 역사적 전통을 변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지 통찰력을 주며 오경과 에스라-nehemiah서의 주된 관점으로부터 다르게 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구원, 구원의 상태 모두 나타낼 수 있어”

이어 마지막 세 번째로 발제한 김문경 교수는 “요한일서에 나타나는 구원 이해를 내러티브적으로 고찰했다”며 “요한일서에 나오는 구원 이해에서 특징적인 여러 개념들과 ‘예수의 죽음’ 이해에 관해 이항-의미론적이고 전승사적인 관점을 검토했을 때, 개념으로서의 구원론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구원론이라는 용어는 어두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요한의 표면적 이론론)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며 “이는 구원을 설명하고 이해할 때 변화의 시점에 대한 개념으로 제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아울러 “구원은 변화의 시점과 그러한 변화의 지속적 영향, 곧 구원의 상태를 모두 나타낼 수도 있다”며 “요한서신은 구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 죄인과 세상이 영생에 이르는 구원과 구원 상태에 관해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조망하는 다중시간적 이해를 통해 영생의 선물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했다.

한편, 발제 이후 질의 응답 및 토의 순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장지동 기자

LX하우시스 www.lxhausys.co.kr

결국 LX Z:m이거나, 아니거나

편의성에 품격을 더한 프리미엄 창호, 슈퍼세이프

LX Z:m

담임목사 만족도에 영향 주는 요인 2위 ‘비전’... 1위는?

목회데이터연구소, 한목협 설문조사 소개

교회 담임목사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교와 비전 등이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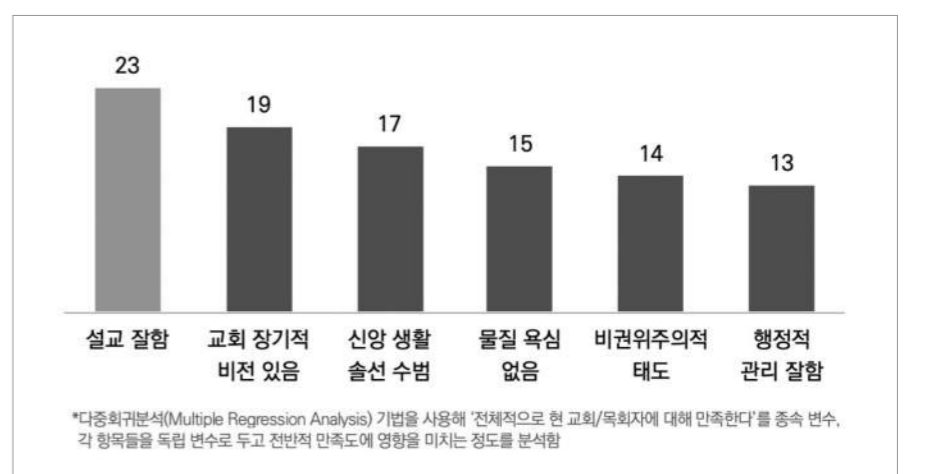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얼마 전 발표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의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의 주요 결과를 26일 소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천 명과 비개신교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목협의 올해 조사는 1998년, 2004년, 2012년, 2017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현 교회와 담임목사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한 결과, 담임목사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교’가 23%로 1위였고, 이어 ‘교회의 장기적 비전’ 19%, ‘신앙생활 실천수행’ 17%, ‘물질 욕심 없음’ 15%, ‘비권위주의적 태도’ 14%, ‘행정적 관리’ 13% 순이었다.

현 출석교회 만족도에는 ‘교회 사역에 대한 평신도의 참여’가 25%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담임 목회자의 리더십’ 24%, ‘소그룹의 체계적인 활동’ 22%,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와 예배의 영성’ 16%, ‘지역사회 봉사/공적 역할’이 차례로 영향을 미쳤다.

연구소는 “종합해 보면 평신도의 참여



담임목사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영향력 비율, %). ©목회데이터연구소

와 ‘설교’뿐 아니라 ‘교회 비전과 인품’을 갖춘 목회자를 성도들이 요구하고 있음을 만족도 질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코로나 기간 소위 ‘가나안 성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나안 성도에게 교회 비출석 이유를 묻는 결과, ‘일매이기 싫어서’가 3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코로나19 때문에’가 18%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때문에’가 보기로 제시된 것은 올해 조사가 처음인데, 이 요인이 전체 2번째로 응답된 것이다. 이에 연구소는 “가나안 성도 급증에 코로나 요인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 가나안 성도의 교회 비출석 이유로는 ‘목회자들이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16%,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11%, ‘교회가 구제, 봉사

활동 등 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해서’ 7%, ‘헌금을 강조해서’ 6% 등의 순으로 꼽혔다.

그렇다면 가나안 성도들의 교회 재출석 의향은 어느 정도일까? ‘의향이 있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비율(43%)이, ‘의향이 없다’는 비율(37%)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가나안 성도의 재출석 의향률이 52%로 타 연령대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현재 교회에서 친교, 사역, 봉사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 교인들의 절반 정도(45%)는 기회가 된다면 교회 봉사 또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17년 조사 대비 12%p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연구소는 “교회 봉사 또는 활동에 대한 비활동자의 향후 의향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지구촌교회, 추석 맞이해 소외 이웃들에게 '명절 선물'

취약계층, 미자립교회, 기관 등에 1억 원 상당 전달

지구촌교회(담임 최성은 목사)가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함께 나누는 선물'을 전달했다. 교회 측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추석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성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이 같은 행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 8월 30일부터 3주간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각종 생필품(각종 세제, 간편식, 식용유, 김, 미역, 햄, 참치, 간장, 치약, 칫솔, 비누, 샴푸, 린스, 각종티슈, 라면, 즉석밥, 조미료, 설탕, 소금, 고추장갑, 행주, 밀가루, 부침가루 등)를 박스로 포장해 1억여 원 상당의 총 1,315박스의 선물을 만들었다. 또한 이 기간 선물을 전달할 대상(취약계층, 미자립교회, 기관 등)을 성도들이 신청했다.

교회 측은 지난 9월 19일 오전 개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배포를 시작했다. 함

께 나누는 선물을 신청했던 성도가 직접 대상자에게 전달했다. 모두 127명(독거노인,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정)이 선물을 받았다. 또한 오후에는 미자립교회 20곳을 비롯해 복지기관 38곳에 선물박스를 전달했다.

수원역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는 지구촌교회 김호영 장로는 "지구촌교회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늘 잊지 않고 선물을 해주셔서 추석명절을 더욱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동탄아르담복지관 현신영 복지사는 "매년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의 지역사회를 살기엔 그 마음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사랑으로 선물을 준비해주시는 성도님들 가정도 늘 평안하시길 바라겠다"고 했다.

함께 나누는 선물을 전달받은 한 미자립교회 목회자는 "지난 주 마트에서 아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선물을 박스로 포장하고 있다. ©지구촌교회

이들이 먹고 싶다고 했지만, 차마 사주지 못하던 물품들이 선물 상자 안에 있어서 우리 부부가 평평 울었다. 세심하게 챙겨준 지구촌교회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지구촌교회 담임 최성은牧사는 "모든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교

회의 역할은 이웃의 아픔을 공유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함께 극복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구세군, 추석 맞이해 이웃 나눔 실천

라면 8,000상자와 쌀 선물세트 800여개 및 온누리 상품권 등 취약계층에 전달

구세군한국군국(사령관 장만희, 이하 구세군)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2023 '구세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지고 있는 구세군의 추석 나눔은 전 통시장과 전국 구세군 시설과 교회를 통해 진행했다.

구세군은 지난 20일부터 전국 구세군 시설과 교회를 중심으로 오후기와 플라보레이션 제작한 라면 '나눔면' 8,000상자를 취약계층과 나누었으며, 21일에는 전국 구세군 무료급식소를 통해 NH농협은행과 함께 쌀 선물세트 800여

개를 전달하였다. 더불어, 22일에는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금융권 4개사(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KB손해보험, 신한카드)와 함께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원시장을 방문, 전통시장 상품을 구매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나누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구세군 측은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총 9천만 원 상당의 상품과 온누리상품권을 전국 20여 개의 구세군 사회복지시설과 교회를 통해 취약 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진 기자



한국 구세군의 대표 장만희 사령관의 추석 나눔 모습. ©구세군

한기총, 대표회장 대수 조정... 정서영 목사 28대→26대

긴급 임원회 갖고 결정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가 얼마 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 있는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4-4차 긴급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정서영 대표회장을 대리해 위임받은 공동회장 김정환 목사가 진행했으며, 참석 22명, 위임 22명으로 성원이 되었고, 회원점명 후 5명이 추가로 참석했다.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명예회장으로 박홍자 장로(한국선교회)가 임명됐다. 또 제26-28대 대표회장 대수 조정의 건으로 제26대는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27대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대표회장이 아닌, 법원에서 파송된 직무대행 임시대표회장 이므로 삭제하기로 하고, 제28대 대표회장으로 되어 있는 정서영 목사를 제26대 대표회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건축물 안전 관련 특별위원회 세미나 개최의 건으로 박승주 목사가 건축물 안전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10월과 4월에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질서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합동진리)는 'a. 박 00 목사, 그와 연관된 노회와 개인을 교단에서 제명할 것. b. 교단 관계자들과 면담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 c. 교단 사무실을 실시한 것. d. 위 사실을 토대로 교단에서 관련 내용을 신문에 공고한 것과 밀린 회비 3년치 중 2년의 회비를 내고, 나머지 회비를 내년 1월 총회 전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행정보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김 00 목사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24일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a. 한기총 명의를 도용한 것. b. 임원회 결의사항을 반대한 것. c. 한기총 질서와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 한 것

의 이유와 '제32-14차 윤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임원회 결의된 사항을 반대하여 윤리위원회에서 8명을 자격 정지한 전례를 근거로 개인 자격정지 3년 징계를 하자는 원안과, 개인 자격정지를 3개월만 하자는 개의안을 표결하여 개의 12명 찬성, 원안 14명 찬성,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개인 자격정지 3년 징계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드러진 예배에선 공동회장 윤광모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이용운 목사가 기도했고,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가 요한복음 1장 43-51절 본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회의는 명예회장 이승렬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김진영 기자



한기총 제34-4차 긴급 임원회가 열리고 있다. ©한기총

"초저출생 시대, 교회 유희공간을 아동돌봄센터로"

장현일 박사, '12차 지혜의 숲 100인 포럼'서 제안

대한민국역사사미래재단(이사장 김형석)이 최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2차 지혜의 숲 100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복지분야포럼에서 장현일 박사(한국 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출대본 기획위원장)는 '초저출생고령시대 커뮤니티 아동돌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장현일 박사는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 1.55명의 절반도 되지 않으며, 전 세계 288개국(평균 2.3명) 최하위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라는 불명예를 갖는 심각한 인구지진 국가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초저출생 문제에는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의료, 지방소멸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뒤얽혀 있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생산인구(15-64세)가 7년 후 233만 명(추산인구), 9년 후에는 333만 명(추산인구)이 감소하게 되어 경제구조와 기업에 감당하기 어

려운 위기가 오게 된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박사는 초저출생의 요인으로 '결혼 자녀의 가치관 약화' '일가정 양립 곤란' '양육 비용'을 비롯한 '고용 불안정' '수도권 집중화(주거 문제)' '미대 불확실성 증가' 등을 꼽았다. 장 박사는 "아동 돌봄 체계에 초점을 맞추되,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의 함께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생명의 고귀함과 가치를 인정하고 중시하는 생명중심의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하위의 초저출생 국가의 소멸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 3년 안에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문샷 싱킹(MoonShot Thinking)과 룬샷(LoonShot)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전 국민이 깨어 지금 실천해도 20년 30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장 박사는 "전국 3,495개 읍면동에 아동돌봄 시설이 없는 곳이 560개나



발표하고 있는 장현일 박사 ©주최 측 제공

되어 아동돌봄 사각지대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접근성, 신뢰성, 안정성, 지속성, 공동체성, 가족친화성 등을 갖고 있으며 전국 농어촌과 도서 벽지까지 분포되어 있는 5만여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의 유희공간을 아동돌봄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교회에 맞춤형 소규모 아동돌봄센터나 인접마을과 함께 이용하도록 가정형아동돌봄센터를 설치해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소멸가속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동화약품 SINCE 1897

무좀, 이젠 붓으로! 한번에!

*이 약은 단 1회 적용한다.

권순우 한국 최초 남자 프로테니스 통산 2회 우승

바르지오 원스 외용액 (테르비나핀염산염)

발기부전 무통증 바르지오 원스
순발음 무통증 바르지오 네올라라
발기부전 발음 무통증 바르지오 모두르림

“주께서 이끌어 오신 50년, 하나님 나라 앞당기는 교회되길”

세계선교교회 창립 50주년 맞아 기념예배... 전시회와 부흥회 이어져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가 지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가 지난 9월 24일(주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창립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세계선교교회 성도들은 지난 50년을 돌보시고 동행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50년도 주님과 함께 합치게 걸 어갈 것을 다짐했다.

김창섭 담임목사는 “지난 50년 동안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앞으로 달려갈 50 년도 주님과 함께 다음세대에 신앙을 전 수하고, 척박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며, 천국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 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

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 한다”고 비전을 선포했다.

김 목사는 또한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본문으로 “주와 함께 50년 주를 향해 50년”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성경에 두 번 나오는 에벤에셀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목상해 보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 블레셋 군 대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렸지만, 전 쟁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인간의 생각을 내 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블레셋을 물리치셨 다”면서, “세계선교교회를 위한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 오늘의 자리가 가능했다. 기 도 외에는 다른 길도 방법도 없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꿈도 주신다. 함께 더 멋지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교회,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 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고 했다.

찬양팀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이재영 장로의 대표기도 후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별찬양 그리고 2부창립기념 식으로 이어졌다. 50주년 특별영상 다 같이 시청한 후, 모세선교회가 ‘지금까지 지 내온 것 특송을 올려 드렸다. 50주년 특 별 케익 커팅 후에 이재국 장로가 원로 장로로 추대되고 이재영, 강석건 장로의 은퇴식이 열려, 믿음의 1세대들이 새로운 세대를 위해 길을 열어주는 아름다운 뒷 모습으로 진한 여운으로 남았다.

2대 목사 안병호 목사와 최은형 목사 가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고, 3대 목사인 허번 목사가 축하했다. 허 목사는 “세계선 교교회와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50주년을 맞아 화년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으 실 때까지 그 일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교 회가 되라”는 권면을 담아 축하했다. 교회 가 후원하는 스트릿 캠퍼니 이용석 대표 의 사역 보고가 이어져, 선교의 열매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세계선교교회는 창립기념주일마다 성찬식을 갖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다. 어김없이 진행된 성 찬식에서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세계선교교회와 그리스도 회생의 의미를 기억하고 주님의 몸으로써 살아가길 다시 금 굳게 다짐했다. 모든 예배는 허번 목사 의 축도로 마쳤다.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다. ©교회 측 제공

한편, 세계선교교회는 창립 50주년을 10월 1일(주일) 오전 8시, 11시에 ‘하나님 맞아 50주년 사진 전시회와 함께 전교인이 의 꿈이란 제목으로 미얀마에서 사역하 참여한 필사 성경 전시회도 진행했다. 9 월 29일(금) 저녁 7시, 30일(토) 저녁 7시, 흥회도 열렸다. 김민선 기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치유사역 감당하길”



좋은소식교회가 담임 목사 이취임 감사예배를 24일 오후 4시 30분에 드렸다. 앞줄 왼쪽 에서 네번째가 이순애 목사, 다섯번째가 이호우 목사. ©토마스 멩 기자

좋은소식교회 이취임 감사예배

이호우 목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와”

좋은소식교회가 담임 목사 이취임 감 사예배를 24일 오후 4시 30분에 드렸다. 이날 이호우 목사가 이임했고, 이순애 목 사가 좋은소식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이임사를 전한 이호우 목사는 “지난 30 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면서 “그동안 여러 어 려움이 있어 어쩔 때는 하루 12번 이상 목회를 그만두어야 되겠다고 밤을 지새 기도 했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 의 은혜였음을 고백한다. 특별히 저와 바 통 터치를 하는 이순애 목사에게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호우 목사 은퇴사에서 축하한 목회 자들은 “이 목사님은 OC협에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리고 인도교회를 세우고 좋은소식교회를 후임자에게 물려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면서 “미디어 사역과 복음방송 사역, 중보기도 사역 등 지금까지 잘 감당하셨 다. 이제 인생의 2막을 시작하는 출발점 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2부 순서로 진행된 취임사에서 취임사 를 한 이순애 목사는 “40에 부르심을 받 아서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고생이 많았다. 좋은소식교회 전도사 로 부임했을 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했고, 무조건 잘했다 고 칭찬하는 목사님과 성도들 덕분에 많



이호우 목사 내외(좌)와 이순애 목사 내외(우) ©토마스 멩 기자

은 힘을 얻었다”라면서 “앞으로 이 교회 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한 다. 끝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삶으로 분 을 보여준 이호우 목사님께 감사한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축사와 권면을 한 목회자 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목 회를 해나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헌신적 인 목회를 통해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 는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은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 와 희생을 각오하고 목회하기를 바란다. 요즘 교회나 사회를 보면 이것이 잘 안되 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기 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첫째로 겸손해야 하고, 둘째로 교회 화평을 위해 힘써야 하고, 셋째로 조직의 리더로서 법을 따라서 목회를 해

야 한다. 넷째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 이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끝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 하다. 목회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다. 이것 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 회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은퇴사에서 김대순 목사(가나안교회 은퇴), 우상림 목사(영원한기쁨교회), 김종 대 장로(전 OC한인회 회장), 류창렬 목사 (나눔동산교회), 심주섭 목사(전 좋은소 식교회 협동)가 각각 축사를 했고 So-Cal Indian Church가 축가 및 인사를 했다. 취임식에서는 이상명 목사(미주장신대 총 장), 박종기 목사(엘피스교회 원로), 김경 섭 목사(OC영락교회)가 축사를 했고 민 준기 목사(가주장로교회 원로)가 권면을 했다. KAM CHORALE 축가를 했다.

좋은소식교회 2023년 표어는 ‘주여 이 제 회복하게 하소서’이다. 토마스 멩 기자

따뜻하고 풍성한 ‘이웃초청 주일예배’

애틀랜타성결교회,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한 예배 통해 전도에 박차

애틀랜타성결교회(담임 김종민 목사) 에서 따뜻하고 풍성한 ‘이웃초청 주일예 배’를 마쳤다. 지난 주일 오전 11시 30분, 예배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과 이웃들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해 온 예배에 자 연스럽게 녹아들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찬양과 대표 기도, 성경봉독, 한나 여성중창단의 찬양에 함께 했다.

예배소서 2장 19-22절 말씀을 본문 으로 단에 선 김종민 목사는 ‘함께 지어 저 가느니라’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이 허물어지고, 그 사랑 과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지어저 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비전 선언과 광고, 폐회 찬송이 이어 졌고 축도로 모든 예배가 아름답게 마

무리됐다.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먹은 후에는 육적인 양식도 빠질 수 없는 밤 교회에 서 정성껏 준비한 풍성한 만찬을 통해 모두 즐겁게 친교하고 선물을 나누며 감사가 배가 됐다.

애틀랜타성결교회는 예수님의 보혈 로 자유를 누리시는 교회, 성령님의 선물 을 함께 나누는 교회, 다양성을 인정하 고 변화를 즐겨워하는 교회, 칭찬과 격 려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비전으로 삼아 선교에 열매 맺는 교회가 되고자 나아가고 있다.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40분, 주일학교 오전 11시 15분, 주일 성 경공부 오후 1시 등이며 화-금 오전 6 시 새벽예배를 드리고 있다. 문의: 770-882-6031 김민선 기자




이웃초청주일예배가 열리고 있는 애틀랜타성결교회 본당. ©교회 측 제공

광고심의필 : 2017-1405-1900

소화 · 정 장 · 변비 · 영양에는 **일반의약품** Since1956

원기소플러스 정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효모 · 효소 · 유산균 · 복합제제

腸(장)은 비우고, 영양은 채우고 소화력은 높이세요

- ✓ 효모는 각종 성분의 영양공급원입니다
- ✓ 효소는 소화를 도와주고 활성화해줍니다
- ✓ 유산균은 저하된 장기능을 개선해줍니다
- ✓ 효모속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 ✓ 효모속 비오틴 성분은 탈모를 예방합니다
- ✓ 어린이, 남·녀·노·소, 누구나 복용 할 수 있습니다

| 효능 · 효과 | 소화불량, 소화촉진, 정 장, 변비, 영양, 과식, 체할, 설사, 묽은변, 구역, 구토, 식욕감퇴, 식욕부진, 복부팽만감, 위부팽만감, 장내이상발효.

| 복용 방 법 | 물과 함께 삼켜서 복용, 또는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서 복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길 72-1 소비자 상담 : 02-407-5535, 02-533-2992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항저우 아시안게임서 종교관 재개, 기독교 선수들 감사 고백하며 예배”

항저우 하계아시안게임 스포츠선교단, 현장 사역 보고 대한민국 선수단의 승리와 기독교 선수들 위해 기도 요청

“응원 사역 위해 경기장 들어가고 싶지만 표 구하기 어려워, 스포츠선교단 사역자들도 경기장 출입 권한 받았으면...”

“대한민국 선수단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수들이 뛰는 경기장에서 예배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을 넘어서 영광의 순간에 서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진행되는 제19회 항저우 하계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고, 기도와 예배, 상담 사역 등을 지원하고 있는 스포츠선교단이 2일 현장 소식을 보고했다.

한국올림픽선교회는 3대 대표회장 이장군 목사(순복음강남교회 담임)를 비롯하여 사무총장 황승택 목사(진천국가대표선수촌교회 담임), 여의도순복음교회 교무국체육교구 신상윤 목사를 중심으로 20명의 스포츠선교단을 구성해 총 4차에 걸쳐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항저우에 파견했다.

1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국올림픽선교회 사역자 2명, 2차는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 체육교구와 한국올림픽선교회 사역자 등 8명, 3차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순복음강남교회와 순복음강남교회 실업선교회 사역자 8명, 4차는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 체육교구와 한국올림픽선교회 사역자 2명이 각각 참여 사역을 진행했다.

한국올림픽선교회 사무총장 황승택 목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가장 감사한 일 중 하나는 종교관이 다시 운영된 것”이라며 “진천선수촌에서 파송 및 대한민국필승기원예배를 드리는 날,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장재근 총장이 종교담당자들과의 면담에서 종교관 운영이 선수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셨고 종교관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종교관은 현재 명상실 A, B, C 3개 실을 운영하며, 한국올림픽선교회는 가운데 B실을 이용하고 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포츠선교단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독교 선수들을 위한 예배 사역이었다. 황 목사는 “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은 모두 각자 루틴을 가지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한다. 특히 당일 시합에 모든 것을 맞춰 준비 과정을 거쳐 경기에 임한다”라며 “선수들 중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자신의 루틴을 망가트리지 않기 위해 징크스를 갖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들도 있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황승택 목사는 “무엇보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마음의 중심에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 대회 기간 그 무엇보다 신앙의 힘을 의지하며 경기에 임하는데, 이를 함께 할 수 있



①맨 왼쪽부터 한국올림픽선교회 사무총장 황승택 목사, 3대 대표회장 이장군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교무국체육교구 신상윤 목사 ②지난 27일 경기장 관람석에서 스포츠선교단이 태극기를 펼쳐 들고 응원하며 기도했다. ③지난 27일 표가 매진돼 경기장 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자필드하키 선수들의 도움으로 표를 구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④지난 1일 종교관에서 여자필드하키 선수들이 대한민국 vs 인도 필드하키 경기 표를 전달했다. 맨 왼쪽부터 이진민, 조은지 선수와 황승택 목사 ⑤맨 왼쪽부터 여자필드하키 박승애, 이유리, 강진아 선수가 격려받고 있다. ©한국올림픽선교회

는 종교관이 운영되면서 많은 선수가 감사의 고백을 하며 대회 기간 매주 수요일과 주일에 종교관으로 찾아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1일 주일예배에서는 기독교 선수들이 각 종목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선포됐다. 황승택 목사는 “기독교 선수들은 경기장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다”라며 “기독교 선수들은 하나님이 경기장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경기의 대표선수로 출전하는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증인이 된다. 지금 내가 걸어온 길을 보고 따라올 사람들에게 행함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배를 드리는 목적에 대해 “경기에서 승리나 명예를 얻거나, 나의 계획과 노력의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목사는 또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서 함께 이루심을 기대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권능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아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곳에서 기독교 선수들이 경기장 중심에서 사랑을 바라

보고, 각 종목의 복의 근원이 되길 바라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대표선수들의 경기 현장에서 응원하는 일은 스포츠선교단의 중요한 사역이지만, 이번에는 매진된 경기장 많아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했다.

황 목사는 “현장에서는 이미 1년 전에 이벤트로 표를 나누어주었고 판매된 분량도 많았기 때문에 매 경기 매진된 상황이었다”라며 “평생 운동만 해 온 선수들 중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대표선수가 되었다. 선수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순간에 경기장에 함께 하고 싶은데 그 과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장에 들어

가는 것이 그 어떤 국제대회보다 어려웠고, 국가대표선수들이 선발되어 경기장에 서는 것만큼 어려워 마치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것 같았다”라며 “경기장에서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 있는 선수들이 수요예배 후 저에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2장씩 나눠줄 수 있는 표를 구입해 전달했다. 이 선수들은 스포츠선교단이 경기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며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라고 전했다.

황승택 목사는 “찾아가야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음에도 출입 권한을 받지 못해 대회장에 찾아가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대회 기간 기독교 선수들이 신앙의 힘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바라는데, 평소 선수촌에서 함께 예배한 사역자들이 경기장의 출입 권한을 받았으면 한다”며 기도를 요청했다. 또 “선수, 코치, 감독, 관계자, 선교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이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도심을 선포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한다”라며 “지금 대표팀으로 선발된 선수들이 앞으로 파리 하계올림픽대회까지 기량의 발전을 거듭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소속 한국올림픽선교회이사장-총재 이영훈 목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1984년 LA 올림픽을 시작으로, 스포츠 이벤트를 세계선교의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왔다. 오는 10월 8일 오후 3시에는 순복음강남교회에서 대표회장 아취임식이 열린다. 이날 2대 대표회장 함덕기 목사(순복음시흥교회 담임)에 이어 3대 대표회장으로 이상균 목사(순복음강남교회 담임)가 취임한다. 이지희 기자

김교원 신임 총회장 “화목총회 위한 피스메이커 역할 하겠다”

예장 새중앙총회 제4회 총회장 취임감사예배 드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새중앙총회 신임 총회장 김교원 목사(참사랑교회)가 제4회 총회장 취임감사예배에서 총회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총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울 방이동 총회본부에서 ‘총회장 아취임감사예배’로 드려진 예배에서 김교원 신임 총회장은 “임기 동안 화목 총회로 만드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2-3년간 지나면 새

중앙총회는 웅대한 총회 이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①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바른 신학의 확립 ②순수한 복음의 회복 ③성령운동 ④칭송받는 새중앙총회, 산하교회 되기 등 총회 운영 4대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성모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최경희 목사의 기도, 이용하 목사의 특송 후 직전 총회장 최영순 목사의 예수

님의 마음(빌 2:5-8)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새중앙총회는 제1인 제왕적 지도자에게서 습득된 모순을 벗어나 버리고자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임마누엘 정신으로 새롭게 설립한 총회”라며 “이제 민주적 리더십으로 총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을 맡은 김교원 신임 총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최영순 목사는 이어 “새중앙총회의 지나는 것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며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하고 겸비한 자세와

마음으로 서로가 먼저 헌신하며 섬기는 총회원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신임 총회장 김교원 목사는 이날 직전 총회장 최영순 목사에 이임 감사 및 꽃다발을 증정했으며, 최영순 목사는 신임 총회장 김교원 목사에 총회장 취임장 및 꽃다발을 증정했다. 이후 정중자 목사의 축사, 홍무 구자중 목사의 광고, 김교원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새중앙총회는 총회 설립과 동시에 대립과 분열의 아픔을 겪었지만, 직전 총회장 최영순 목사의 헌신과 김교원 목



신임 총회장 김교원 목사(오른쪽)가 직전 총회장 최영순 목사(왼쪽)로부터 총회장 취임장 및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예장 새중앙총회

사의 결단, 총회원들의 노력으로 총회의 안정과 성장의 기쁨을 다졌다. 현재 중소교단들의 합병 문의가 들어오는 데 대해

김교원 총회장은 “총회의 세 확장보다 우선 내실을 튼튼하게 다진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희 기자

서울대 출신

골치 아픈 세금문제, 세무사가 해결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분 좋은 세무 파트너 송선호 세무사

<p>비영리법인</p> <p>비영리단체</p> <p>교회, 목회자 세금신고</p> <p>법인세, 소득세</p>	<p>부가가치세</p> <p>상속세, 증여세</p> <p>양도소득세</p>	<p>고문세무사 차삼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5개 세무서 근무 •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및 송무업무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팀장 • 삼성세무서 재산세과장 • 서울지방국세청 • 조사1,2,3국 조사관리팀장 • 종로, 서초세무서 법인세 과장 	<p>세무사 송선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과학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세무사회 고시회 이사 • 국세청 영세납세지원단 세무사 • 서울시 마을세무사 • 국세청 국제심사위원회
---	--	---	--

세무사 송선호

세무상담 02-3295-3300

“시리아·레바논 기독교인들, 대규모 탈출... 신앙의 미래 위협”

시리아와 레바논 출신의 '절박한' 기독교인들이 대규모 탈출을 감행하면서 두 나라 신앙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한 교회 지도자가 경고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ACN(Aid to the Church in Need)이 발표한 2023년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는 시리아 기독교 인구가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전체 인구의 6.31%에서 3.84%로 어떻게 감소했는지 보여준다.

레바논 기독교인 수에 대한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가별 현황보고서(Factbook)은 현재 인구의

약 3분의 1(32.4%)로 기독교인 비율을 추정하고 있다. 이는 당시 레바논 기독교인 수가 4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 미국 국무부의 2010년 보고서에서 인용한 수치보다 낮다.

유세프 압시(Youssef Absi) 멜리트 그리스 가톨릭 총대주교는 ACN과의 인터뷰에서 중동 기독교인들이 남아 있으라는 교회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고국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조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며 “타널 끝에는 빛이 없다”고 말했다.

시리아와 레바논 모두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전염병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시리아 문제는 계속되는 내전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주기가 어려웠다”고 압시 총대주교는 설명했다.

그는 “이민의 물결은 항상 있어왔다. 요즘에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유가 혼합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신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가 정부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그는 “타널 끝에는 빛이 없고 단기적인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지원 없이는 더 이상 그들이 머물도록 설득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일반 대중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서방세계에 촉구했다.

그는 “우리 친구들은 이런 방향으로 돕거나 제재가 해제되도록 정부,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Pixabay

파키스탄 폭탄테러로 친척 20명 잃은 英목회자... “용서한다”

파키스탄에서 테러리스트에 의해 어머니와 친척 19명이 살해된 스코틀랜드 교회 목회자가 어떻게 가족을 살해한 이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지 공개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아프타브 고하르(Aftab Gohar) 목사는 지난 2013년 9월 22일(이하 현지시간) 페샤와르의 올 세인트 교회(All Saints Church)를 강타한 자살폭탄 테러범들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프타브 고하르 목사. ©Church of Scotland

그는 질문이 많았으며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식으로 사망하도록 허용되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힘든 시기였고 나는 ‘왜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의문을 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날 교회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 옳은 일을 했는가?”라고 질문하며 “성경에는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을 받은즉 복이 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모두 믿음 때문에 죽었다”라고 했다.

그 비참했던 날, 고하르 목사는 스코틀랜드에 소재한 자신의 교회 주일예배에서 설교를 준비하던 중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와 가족의 죽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던 것을 기억했다.

파키스탄에서 자랐고 가족과 함께 올 세인트 교회를 출석했던 고하르 목사는 예배를 취소하여 교구민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대로 계속했으며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 그들에게

말했다. 두 번의 폭발로 올 세인트 교회가 휩쓸려 최소 122명이 사망하고 2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고하르 목사의 어머니 이크발 고하르(Iqbal Gohar)와 조카, 조카, 사촌, 삼촌, 숙모, 친구들도 당시 공격으로 사망했다.

그는 “살인범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서 유대인들이 나치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다 붙잡힌 후 라벤스브뤽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네덜란드 여성 코리 텐 봄에게서 영감을 얻었다.

그는 “책임자들을 용서하기가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고 증오와 복수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시다’라고 기도하셨다”라며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교훈은 일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교훈”이라고 했다.

다. 그는 테러공격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파키스탄 신성모독법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기독교인들은 이 법이 자신들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종종 남용된다고 말한다.

2008년부터 스코틀랜드 교회의 전임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하르 목사는 최근 글래스고 주재 파키스탄 영사관에 다른 운동가들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는 파키스탄 정부가 소수 종교인들의 안전을 개선하고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이들을 신성모독법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샬리 포스터-폴튼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장은 “우리는 이 잔혹 행위가 희생자와 생존자의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되돌아보며 슬픔에 잠겼다. 슬프게도 기독교인들은 오늘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2023년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으며 신성모독이 무기화되고 있다”라며 “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소외계층과 지역 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거짓 기소는 삶을 망치고 사람들이 집을 떠나 숨어 지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신성모독법의 오용에 대해 예루살렘 및 국제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파키스탄 정부에 소수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英콘월에 소재한 교회 수십여 곳, 주일예배 드리지 않고 있어”

영국 콘월 전역에 소재한 교회 수십여 곳이 주일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텔레그래프가 최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카운티 내 287개 교회를 조사했고 그 결과 78개 교회에는 9월 마지막 주일 어떤 주일예배 광고도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운티 교회의 4분의 1(127%)이 넘는 숫자라고 한다. 주일예배를 드린 교회 중 절반도 안 되는 교회(114개)가 성찬을 드리고 있었다.

콘월의 교회 23곳은 9월 내내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은 영국 성공회 교회 찾기 웹사이트인 'A Church Near You'의 예배 일정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세이브더파리시(Save the Parish) 회장인 마르쿠스 워커(Marcus Walker) 목사는 이 수치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텔레그래프에 말했다.

그는 영국 성공회에 더 많은 신부와 교구 구원 사역에 투자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사제 수를 줄이면 예배 횟수도 줄어들고, 예배 횟수를 줄이면 교회에 가는 사람의 수도 줄어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Unsplash / Gregory Hayes

그는 “영국 성공회는 사소한 일에 쓸 수 있는 수익 파운드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 돈을 원래 사용되었던 본당 사역에 다시 투입할 때”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우크라이나, IAEA 이사국 선출... “러, 자포리자 원전 반환하라”

한국 등 11개국 새 이사국으로 선출

우크라이나가 유엔 핵 감시기구의 새로운 이사국 중 하나로 선출됐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 중인 제 67차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이사국에 우크라이나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출된 이사국은 한국을 포함해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소,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네덜란

드, 파라과이, 스페인, 우크라이나 등 11개국이다.

IAEA 이사국은 35개국이다. 이사회가 지명하는 13개국과 총회를 통해 선출하는 22개국(지역 20개국, 운반 2개국)으로 구성된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최대 원자력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현재 원전 지역을 통제하고 있지만, 안에서 원전을 운영 하는 것은 대부분 우크라이나인들이다.

IAEA는 자포리자 원전 인근까지 포탄이 날아드는 것을 경계하면서 핵 사고 가능성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사국 지위가) IAEA 모든 회원국과 전체 국제 사회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는데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개항으로 된 자신의 평화공식 첫 번째 항목에 ‘핵무기 및 방사선(원전) 안보’를 명시하고 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사국 선출 후 X(옛 트위터)에 “러시아는 자포리자 원전에서 군인과 기타 승인 받지 않은 인력을 모두 철수시키고 즉시 우크라이나에 완전한 통제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정원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발기금
-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
 - 기업구조조정펀드
 - 캠코 신비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대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구의 푸른 미래, LG의 클린테크로 켜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부터 다 쓴 자원을 재탄생시키는 기술까지
LG의 클린테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미래, 같이

다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장기화’ 우크라전, 3차대전 번질까... 北·中 등 행보 주목

“北, 세계무대 입지 높여 우크라전 개입 가능성”
“中, 러시아 지원 대가로 대만 침공 지원 요구할 수도”
미 대선도 변수...트럼프 당선시 우크라 지원 중단 가능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어느덧 500일을 넘긴 가운데, 향후 전쟁 장기화가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국제 정세 전문 격월지 ‘내셔널인테레스트’는 최근 발간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차대전으로 이어질까’라는 기사를 통해 이런 가능성에 주목했다. 지난해 2월24일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30일 기준으로 583일을 맞았다.

매체는 “지금까지 분쟁은 국제사회가 관리할 수 있는 범주에 머물러 있었지만, 더 큰 화마로의 전망은 그리 멀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방위위원장은 최근 “3차대전은 이미 진행 중”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러시아의 침공 지속과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현재 전쟁이 1차대전 당시 참호전(foxhole war) 교착 양상을 보인다는 게 매체의 지적이다. 양측 모두 별다른 전략적 영토적 이득 없이 사상자만 내고 있다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3차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내셔널

인테레스트의 분석이다.

매체는 크게 ▲각국 전선 붕괴로 인한 무기 증강 배치 ▲미사일 오발 등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확산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주변국 개입 등을 향후 3차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특히 주변국 개입과 관련하여서는 북한의 행보가 거론됐다.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협상이 급진전 중이라고 평가되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쳤다.

매체는 북한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국가로 꼽고, “김정은은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에서 죽더라도 (전쟁 개입으로) 세계 무대에서 더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된다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행보도 주목됐다. 매체는 그간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표면적으로 중립을 지켜왔으며 “중국은 그들 경제위기가 부분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악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지도부는 대만 강제 병합 내지 정복 전쟁을 적극적으로 고심하고 있다”라며

“시진핑은 어느 시점에 러시아에 대마대유럽 지원의 대가로 대만 침공을 지원해 달라는 거래를 제안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러시아 전선 붕괴로 인한 핵무기 배치 내지 우크라이나 열세로 인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신형 무기 배치 가능성, 폴란드 등 인접국 오발로 인한 나토 5조 집단방위 조항 발동 등이 가능한 확전 계기로 꼽혔다.

내셔널인테레스트는 다만 2014년 크림반도 분쟁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후전 사례 등을 들어 여전히 분쟁을 종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있다고 봤다. 양국 모두 ‘패배 인정’이 아닌 선에서 휴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24년 미국 대선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을 바꿀 수도 있는 ‘와일드카드’로 꼽혔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평가다.

이미 미국 공화당에서는 전쟁이 장기화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이 ‘백지수표’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었다.

아울러 손익이 중심이 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관에 비해, 그가 자국민이 아니라 나토에도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가 마지못해 휴전으로 떠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난영 기자

“양성평등 헌법 가치 부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사퇴하라”

동반연·복음법률가회·
진평연 등 성명 통해 촉구



동반연, 복음법률가회, 진평연 등 단체들이 “양성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부인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단체들은 이 성명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는 (9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헌법정신이 ‘양성간 혼인’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간 ‘유사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앞뒤가 맞지 않은, 매우 위험한 주장을 했다”며 “후보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구현을 기본으로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 인적구성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들은 “현행 헌법과 관련 법률은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하여 여성과 남성의 양성으로 구분하며, 헌법 제36조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나와 있는데, 사람의 성별을 50여 가지의 사회학적 성(gender)에 따라 성평등을 주장하고, 헌법상의 혼인이 동성간 ‘유사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궤변은 실망을 지나서 분노를 금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사회 기초가 되는 가족체제를 무너뜨리는 주장을 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후보자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또한 “가족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관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이균용에 대한 대법원장 후보 추천을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 사회체제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양성으로 구성된 가족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따라 혼인을 민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따른 여성과 남성이 아니라, 50여 가지의 성별 가운데 임의로 정하고 또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사회가 되었을 때, 사회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념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사회체제가 바뀌게 되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가 주장하는 성평등의 개념과 동성결혼이 미치는 혼란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이런 주장을 함부로 할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은 대법원장의 직위가 탐사 야당에게 리서비스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헌법적 기본 가치를 무너뜨

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사람의 성별의 기준을 바꾸고, 동성간 결혼을 정당화하겠다는 주장은 대법원장으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단체들은 “지난 6년 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인해 헌법적 가치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성전환 수술 없이 성전환을 가능하게 한 대법원 후보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내 동성간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의해 사적 공간에서 동성간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례를 바꾸어 큰 충격을 주었다”고 했다.

또 “최근 동성 부부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 상정되어 있어, 헌법 개정 없이 사법적 판단만으로 사람의 성별 기준을 바꾸고,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윤리적 가치를 존중하는 보수적인 정권의 대법원장 후보자가 된 이균용 후보자가 사람의 성별 기준을 바꾸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주장하고, 동성간 결합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모든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균용 후보자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편향된 이념의 거짓 인권에 속아서 그러한 주장을 하였다면 빨리 깨어나기를 요구한다. 그렇지만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평소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균용을 대법원장 후보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이균용 대법원장의 후보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대법원장이 된다면, 앞으로 사법적 판단에 의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시민단체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철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사적이며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이어 “윤리적 가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균용 후보는 서구 사회가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치가 파괴되고 젊은이들이 고통을 겪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조속히 사퇴하여 사회적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거취를 결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윤리 도덕과 다음 세대를 지키기 원하는 모든 국민은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이 없을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강력한 항쟁을 시작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아제르 내 분쟁지역 아르메니아계 주민 12만 명 중 10만 명 탈출

최근 아제르바이잔과 무력 충돌을 겪은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아르메니아계 주민 10만명 이상이 탈출했다.

30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아르메니아 정부는 이날 기준 나고르노-카라바흐에 살던 아르메니아계 주민 10만417명이 자국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약 12만 명으로 추정되는 지역 주민 가운데 85%가 넘는 사람들이 이주한 셈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탈출했고, 이 중에는 배고프고 지친 사람들이 많고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국경에 있는 나고르노-카라바흐는 국제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로 인정되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분쟁 지역이다. 2020년 9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6주간 전면적인 전쟁을 치



아제르 내 분쟁지역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필사의 탈출을 하고 있다. ©현지 영상 캡처

렀고,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끝에 러시아의 중재로 정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양측의 점령지가 복잡하게 나누었고 이후에도 무력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19일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가 하루 만에 휴전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인종 청소를 두려워한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계, 아르메니아는 기독교계로 종교도 다르다.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계 자치정부는 지난 28일 결국 해산을 선언했다. 문예성 기자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
골든부츠(득점왕) 수상
손흥민

안티푸라민
쿨에어파스 에어로솔
의약품

**대한민국이
당신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유한양행

마약중독재활시설 경기도 다르크 결국 퇴거... “지원 호소”

경기도 다르크 및 한국중독전문가협회 등, 27일 기자회견 개최

마약중독재활시설인 경기도 다르크(DARC-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 센터장 임상현 목사)가 지역 사회로부터의 이전 요구를 이기지 못해 결국 건물 퇴거 사태를 맞았다. 경기도 다르크 및 인천침사리병원,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등 다수 참여기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마약중독 재활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경기도 다르크는 올해 3월 노인요양시설로 사용하던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한 건물로 이전하자 남양주시 지역 사회로부터 ‘협오시설로 낙인찍히면서 거센 이전 요구’를 받았다. 센터 장소로부터 반경 500m 내 중고등학교가 있어 학부모와 맘카페 등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수 민원이 제기됐다.

현재 법령상 마약중독재활센터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경기도 다르크에 퇴거명령을 내렸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중독재활시설로 분류된 경기도 다르크가 예산 문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를 당국에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신고에 따라 인력 채용 등 내부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조달할 재원이 부족했다는 게 다르크 측 주장이다. 당국으로부터 지난달 24일 시설 퇴거 명령을 받은 다르크는 지난달 말 이후 건물을 비운 상황이다. 또 다르크는 시설등록 규정을 갖춰 관계 당국에 등록신고를 했음에도 지난 12일 시설등록불가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다르크는 2019년 설립 이후 마약중독으로 입소한 90명 가운데 60명의 단약을 도운 시설이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이번 경기도 다르

크 퇴거 사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정작 마약재활치료사업에 대한 지원이 미진함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르크센터마약재활치료전문병원 확충 등 정부의 관련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 이해국 교수(가톨릭의과대학 정신의학과)는 “지난 5년 사이 마약사범의 숫자는 1만 명에서 2만 명 수준으로 2배로 늘고, 10대 마약사범은 4배, 20대는 3배가 증가했다”며 “그러나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여전히 40%를 육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도했던 나라들이 결국 마약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도는 치료와 재활에 있다며 이에 대한 투자가 앞장서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현장에서 마약 문제를 범죄로 보고 단속과 처벌 위주의 접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경기도 다르크 센터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협오시설로 몰려 보금자리를 잃게 될 위기를 맞았고, 마약중독자를 치료하는 민간병원들은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대책으로 40%에 육박하는 재범률을 줄일 수 없다”며 “중독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마약중독자들이 외래치료와 병행해, 집중적 재활 상담 및 생활관리 등 다양한 수준의 재활시설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영 중단 위기를 맞고 있는 경기도 다르크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 임상현 목사는 “약물 중독자들은 정신병원 등 치료시설에서 약물 디톡스(Detox) 과정을 거쳐도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노형구 기자

사회 부적응 문제로 약물 재발 문제를 겪고 있다”며 “혼자 힘으로 약물을 끊을 수 없고, 교도소 출소자의 80% 이상은 마약재범자가 된다”고 했다.

이어 “다르크 센터는 회복경험 공유 등 탈마약중독자의 지도아래 중독자들이 24시간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단약교육 및 직업재활, 사회 복귀까지 전인격적 변화를 이뤄내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르크는 병원 치료를 받은 이들이 사회나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장소로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연간 마약재활치료비용으로 5명당 1억 2천만 원이 소요되는데도, 민간 스스로가 운영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임 목사는 “그러나 지역사회는 경기도 다르크 시설을 혐오시설로 낙인찍어 현재 건물에서 쫓겨난 상태”라며 “최근 벌어진 일로 인해 다르크 입소자 16명 중 불안을 호소한 2명이 단약에 성공하지 못한 채 자진 퇴소 신청을 했고, 마약재범으로 인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전했다.

임상현 목사는 “시설이 학교 옆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의) 퇴거명령

이 내려졌다. 이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장소로 이전하길 원한다”

또 “4년 이상 운영하면서 정부 예산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다르크 센터 운영을 위해선 예산이 필요하다”며 “중독재활시설 운영을 위해선 1년간 예산지원 없이 운영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 4년간 운영했던 내용을 소급해 승인해달라”고 했다.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김영호 교수는 “정부가 최근 마약류대책협의회 관련 예산을 2.5배 증액했다고 하나,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은 마약중독자에 대한 처벌과 구속에 위한 정책”이라며 “마약중독자를 건지려면 정신병원 등 마약류해독센터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다르크 센터 확충에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다르크 센터장 임상현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국립법무병원 조성남 원장은 “현재 일본 전역 90여개 정도 분포한 다르크센터는 지금까지 마약중독자 2000여 명의 단약을 도왔다”며 “일본 법원도 마약사범 자 절반 이상을 다르크에 공식 의뢰해, 마약중독재활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경기도 다르크 사태는 대한민국 마약중독재활 치료의 성공 혹은 실패의 기로가 될 수 있다”며 “마약중독 문제는 질환으로 처벌이 아닌 치료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다르크 등 마약중독 재활시설이 확충되도록 관련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다르크입소자 전원도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경기도 다르크 입소자들은 남양주시 행정처분으로 공동생활이 힘들어졌고, 다시금 약물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며 “다

르크는 범죄자들을 가둬두는 교도소나 단순히 약물치료를 통해 단약을 이끌어내는 병원이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경기도 다르크 안에서 매일 성경말씀을 읽고 신앙심을 키워 영적회복을 통해 단약 의지를 다른 약물 의존자들과 나눔으로써 약물로부터 오는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근본적 힘을 기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만일 경기도 다르크가 없었다면 마약 재범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교도소에 가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했거나 결국엔 죽음을 이뤘었을 것”이라며 “우리를 범죄자로 바라보지만 것이 아닌 치유가 필요한 사회 구성원으로 봐달라. 경기도 다르크는 마약 단약을 원하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기독교 청년들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 개최

CTS기독교TV 컨벤션홀에서 10월 9일

CTS문화재단에서 기독교청년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원데이 '부트캠프'를 개최한다.

CTS기독교TV 11층 컨벤션홀에서 10월 9일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기독교청년으로서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관심있는 대학(원)생, 또는 네트워크 형성과 인큐베이팅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캠프의 강사진으로는 세션 브리치 임팩트사업원 정평진 대표가 '스타트업, No답에서 Know답으로', 세션2 로이로 이서울 김서정 대표가 '우리 함께 가치를, 세션3 Davydiffuser 이도겸 대표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세션4 미션모빌리티 배건우 대표가 '하나님 나의 인생 플래너'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정평진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은 선한 영향력을 발산하는 비즈니스를 꾸리는 분들을 만나는 것이 설렌다”며 “기독교 청년으로서 스타트업을 시작하며 풀어야 할 마음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김서정 대표는 “세대를 아우르는 컨텐트포러티 디자이너 브랜드 로이로이서울은 'Faith, Hope, and Love'라는 디자이너의 철학을 브랜드에 담는다”며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와 협업하여 패션 그 이상의 가치를 공유하고 문화를 선도한다. 우리가 함께 걷는 여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이도겸 대표는 “다비디퍼저를 창업하고 3년 동안 경영해오면서 연 매출 10억을 넘어설 수 있었지만, 사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다.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



부트캠프의 강사진들 모습. ©CTS문화재단

었다”며 “이 위기가 되고 비전을 제시해주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다.

배건우 대표는 “하나님의 진리가 흐러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선한 청년사업가들을 기독교청년 부트캠프에서 뵙기를 원한다”며 “이를 통해 사업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재설정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상진 기자

산림청

천년의 푸르름을 간직한 소나무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6개월

**감염목의 훈증처리 후
6개월까지는 훼손 및 이동 금지**

※떨감등으로 무단사용 금지.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찔방, 조경업체 등
유통·취급 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작성비지**

※위반시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이나
감염 의심목 발견시 신고**

※관계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1588-3249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잘못된 상식 바로 알기

3년

Q 재선충병 때문에 소나무가 3년 내 멸종하나요?
A 소나무는 재선충병 방제를 전혀 하지 않아도 단기간 내 소나무가 멸종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AIDS

Q 재선충병이 '소나무에이즈'라는 표현이 맞나요?
A 재선충병과 '에이즈'와는 감염·치료 특성 등이 다르니 '소나무에이즈'라는 표현은 부적절 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류에 피해를 입히는 1mm 내외의 작은 선충으로, 감염 시 100% 고사시키는 병.

(사)글로벌에듀, 아프리카 르완다·케냐 등 방문한다

현지 선교 및 교육 지원 활동 위해

사단법인 글로벌에듀가 오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를 방문해 현지 선교 및 교육 지원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총 35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이번 일정 가운데 선교와 외교를 위한 사역을 하게 되며, 글로벌에듀가 코이카(KOICA)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촌학교 프로젝트 현장인 빅토리아 호수 이슬레 지역도 방문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에듀에 따르면 새에넬교회(담임 소강석 목사) 김철수 장로가 고등학교를, 순천북부교회(담임 김동문 목사) 조후진 집사가 초등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후원, 르완다에서 기공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대식 목사가 우간다에 건축한 목회자성경연구원(아바드선교센터) 준공식도 열린다.

특별히 이번 방문 일정 가운데 글로벌에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2023 High-

Level Conference on Korea-Africa Partnerships(KOAFP)' 행사에도 참석한다. 10월 4일, 31개 국가가 참여하는 저녁 만찬 개회식에 글로벌에듀 방문단 전체가 참석하고, 이사장인 소강석 목사가 주강사로 연설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케냐와 잠비아 대통령도 함께 한다고 한다.

한편, 글로벌에듀는 올해 초, 인도 동북부 마니푸르 지역을 찾아 2주 동안 30여 명이 학교와 고아원을 돕는 일을 펼치기도 했었다. 김진영 기자

요한복음(21) '위로부터 오신 예수'



본문: 요3:31-36
 설교: 인천신기중앙교회 이희우 목사

성경 중의 성경,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접한 말씀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 바로 다음 절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세상을 구원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이다(17절). 간결한 복음의 핵심 너무 잘 요약됐다. 그래서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의 축약, 작은 복음이라 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까지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지독한 사랑이라는 말씀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무한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너무너무 사랑하시"(loved so much)라는 말이다. 아들을 보내주시실 만큼 지독한 사랑이라는 거다. 많은 아들 가운데서 하나도 힘든데, 유일한 아들이니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 리차드슨(Don Richardson)의 『화해의 아이』(Peace Child)라는 책을 보면 더 실감이 난다. 치열하게 싸우는 두 마음이 추장의 아이를 하나씩 교환하고 휴전을 하는데 부모도 많고 자녀도 많지만 하나 고르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첫째는 이래서 안 되고, 둘째는 저래서 안 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택해 보내는데 그 아이가 죽거나 아프면 다시 전쟁이 난다. 선교사가 그 아이 보낼 때의 심정을 묻자 추장은 지금이라도 데려오고 싶다고 대답한다. 그때 선교사가 하나님도 화해의 아이(Peace Child)를 보냈는데 그것도 와야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이를 죽였다며 복음을 전했을 때 식인종들이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여더라는 것이다.

죽을 줄 알고 화해의 아이를 보내신 하나님, 말씀주러기도 아니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독생자를 보내셨다. 바람 쐬고 편히 쉬며 놀다 오라고 보내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보내신 거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희생인데, 바울의 표현대로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일(빌2:7)을 하신 거다. 하나님과 동등 됨을 포기하고 자기를 낮출 대로 낮추어 종의 형태로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구원과 영생을 주기 위한 사랑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하지만 이 사랑과 은혜를 실제로 누리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나 다 받는 구원이 아니라라는 말씀, 믿고 따라야만 된다는 말씀이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본문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충 설명이며 요 3:16-21절 내용의 반복 같은 말씀이다. 요한은 3장에서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표현을 여러 번 쓰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한다. 먼저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31절)라 했다. '일등하시다', '절대 우월자라는 뜻이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34절)라 했다. 반면에 침례(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땅에서 난 사람', 31절 한 절 속에 땅에서 태어났다는 등 땅에 속했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된다. 예수님이 침례(세례) 요한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 신적 존재라는 말이다. 급야 요한은 예수님을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35-36절).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도 언급한다. "만물 위에 계신 이"(31절),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 손에 들려주신 이"(35절)라고 한 것이다. 그뿐인가? 요한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이"(34절)라고 선언한다. 무제한, 끝없는 선물이란 말이다. 예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다는 것은 성령을 '한량 있게' 즉 제한적으로 받은 모든 인물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단순한 선지자나 선생이 아니다. 마태가 예수께서는 침례(세례)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마 11:9)라 하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지 않다"(마 11:11)고 말씀하신 것을 소개했지만 예수님과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다.

침례(세례) 요한 스스로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고 했다. 그렇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역사상 그 누구도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시다. 비록 우리와 꼭 같은 인간으로 사셨지만 하나님(God-man), 우리



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성령과도 온전히 하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본문은 열심히 읽어도 정확히 누구의 말인지 알 수가 없다. 학자들의 견해도 혼란스럽다. 머레이(Murray)는 30절에서 이어진 침례 요한의 말로 보고, 볼트만(Bultmann)은 예수님의 독백으로 본다. 하지만 레온 모리스는 기록자 요한의 해설로 본다. 그 이유는 '그의 증언이나 '아들'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3인칭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라 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좀 헷갈린다. 사실이 헷갈림은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그랬다.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의 말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3:14-15). 어디가 예수의 말씀이고 어디가 사도 요한의 말일까? 14절은 예수님 말씀 같은데, 15절은 "그를 믿는 자"라고 예수님을 3인칭으로 표현했다. 헷갈리지 않나?

3장 35절 이하도 마찬가지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버지'란 표현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고백인 것 같은데 '나'라는 표현 대신 '아들'이라는 제3자적 표현을 쓴 게 헷갈리고, '그의 손에 주셨으니'라는 표현도 그렇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내 손에 주셨으니' 해야 하지 않나? 한편 요한의 표현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걸린다. 지금은 다르지만 당시엔 이렇게 표현한 예가 없고,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성경을 읽다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14:24), 하나님은 말씀, 구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때문이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14:11)고 말씀하셨다.

이런 일이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도 일어났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14:20). 요한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구분이 없다. 요한은 예수님을 자기 안에 계시는 분으로 말한다.

요한만 그런가? 아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비유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17:20-21), 우리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라는 말씀이다. 칼 바르트(Karl Barth)는 『로마서 강해』라는 자신의 신학 명저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 저자를 그토록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이제는 그 저자로 하여금 나의 이름 아래 말하게끔 하며, 반대로 나 자신 그 저자의 이름 아래 말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지점 앞까지 돌진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바울이 되고 내가 요한이 되는 거다. 바울의 뜨거움이 나의 뜨거움 되고, 요한의 예수님과 관계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로 재연된다.

이 일은 사실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불가능하지만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34절). 한량없이 부어진 성령, 그 성령은 2천 년 전 사도 바울을 뜨겁게 만들었듯이 우리를 뜨겁게 한

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품속에서 사랑을 나누던 요한의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게 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쁘게 깨닫게 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16:13).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36절). 여기서 '믿는'다는 말과 '순종'이란 말이 동의어로 쓰였다. 같은 의미라는 말이다. 여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믿음은 곧 순종이다. 이렇게 사용한 이유는 믿는 자는 순종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나 심판, 요한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마주치게 하면서 영생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현재성을 강조한다. '영생이 있다'는 말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동사가 다 현재형이다. 그렇다면 생명이 믿는 즉시 주어지고, 진노와 심판도 즉각적으로 받는다는 말이다.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하는 것, 요한은 반복해서 이 현재성을 강조한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매달려 있다고 했다.

계속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최후 심판의 날 그 진노가 지축이 진동하듯, 우주 그 무너지듯 그 머리 위에서 떨어진다. 하나님의 출기찬 진노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믿으면 다르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의 대리자를 때린다. 그 때 바로 갈보리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께서 그 진노가 떨어졌다. 그래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진노와는 멀어진다. 그것도 영원히.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된다.

유대인들의 거부가 계속되자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의 지위가 법적으로 승인되었다는 차원에서 '인했다'는 동사를 썼다(33절). 그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의 보화를 받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인정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인정한다는 의미다. 여하튼 나중에 좋은 데 가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영생을 얻고 누려야 한다. 기억하라. 구원은 현재의 소유다.

또 여기서 말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35절)라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더욱 더 정확히 전달하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이 다 그의 것이라고 말씀한다.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위로부

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31절). 예수님은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시라는 말이다. 모든 것이 그 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영생과 심판도 마찬가지, 예수님께 달려 있다. 그래서 만물의 원리와 존재 목적을 다 아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통치하신다면 그건 최고의 사랑이자 축복일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니고데모나 침례 요한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탄광에서 일하다가 막 나온 두 사람이 손을 잡으려 했다. 같은 의미라는 말이다. 여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믿음은 곧 순종이다. 이렇게 사용한 이유는 믿는 자는 순종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탄광에서 나온 검댕이 깨끗하게 목욕한 사람의 손을 사커뭇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탄광에서 막 나온 사람처럼 죄악으로 더러운 반면에 주님은 흠 없이 거룩하신 분, 우리는 감히 두 손을 내밀어 그 분의 손을 잡을 형편이 못 되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 주셨다. 부끄러워 손을 빼려 해도 어느새 주님의 손이 우리의 죄 많은 두 손을 꼭 잡고 계신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다.

복음전도자 윌리엄 부스(William Booth)는 사람들로 가득 매워진 파리의 어느 홀에서 그 도시의 가장 비천한 사람들, 도덕적 하수구에 떠도는 인간쓰레기 취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매일 밤 복음을 전했다. 반응은 아우와 모욕, 전도자도 사람인데 그것도 여성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녀가 연단에서 내려와 조롱하는 군중 속을 헤치며 뒷좌석에 쓰러져 있는 가련한 한 소녀에게로 다가갔다. 부스는 그 소녀를 안고 "야야,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줄 만큼 너를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입을 맞춘다. 그런 입술이 뺨에 닿아본 적이 없던 소녀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앞으로 나와 자신을 그리스도께 위탁한다. 그녀는 훗날 구세군의 사역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다. 비록 2천여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났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이다. 그리고 어떤 위기와 도전이 밀려오든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기도 하다.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사랑,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김포, 일산 등 주요 도심 속 단독주택 1년에 1억씩 올랐다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여가, 워라벨, 쾌적성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더욱 늘어나자 주택 트렌드도 날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집이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획일화된 아파트가 아닌 독립성과 쾌적성을 갖춘 단독주택이 뜨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편리함은 물론 단독주택의 여유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블록형 단독주택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보통의 단독주택과는 달리 신도시, 택지지구에서도 중심부 일대, 주요 입지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환급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 단독주택과 달리 블록형 단독주택은

집값도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경기 김포 운양동에서 2017년 5월 공급된 L블록형 단독주택은 전용 84㎡의 분양가가 5억 2,000만원이었는데, 2021년 11월 9억 7,000만원에 거래돼 약 4년 6개월 만에 4억 5,000만원이 올랐다. 1년에 1억씩 오르는 셈이다. 또한 경기도 성남 중원구에 2018년 7월 공급된 K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역시 전용 84㎡ 분양가 7억 1,900만원 대비 지난해 5월 10억 1,000만원에 거래돼 약 4년만에 3억원 가까이 올랐다. 특히 1군 건설사의 브랜드가 적용 됐을 때 상승폭이 더 두드러졌다. 경기 김포 운양동에서 2017년 2월 공급된 G블록형 단독주택은 전용 84㎡ 분양가 5억 7,600만원 대비 2021년 11월

11억에 거래돼 4년 9개월만에 5억 2,400만원이 뛰었다. 분양가 대비 거의 2배 오른 것이며, 1년에 1억을 초과하는 상승폭을 보인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블록형 단독주택은 일반 단독주택과 달리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도 적용되고, 구도심이 아닌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위치해 희소성이 높다"며, "공동주택의 편리성과 도심의 편의성을 모두 갖춘 만큼 1년에 1억씩 오르는 등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고, 임대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아파트를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1군 건설사 브랜드 '힐스테이트'가 적용됐으며, '도심 속' 블록형 단독주택으로 불리는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가 분양 중으로 관심을 모은다. 현대건설이 책임준공을 맡아 안전한 사업성숙도를 확보한 단지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경기도 양주시에서도 중심 주거지로 떠오르는 옥정지구 B5-B10블록에 위치해 있고, 지하 1층~지상 3층, 전용면적 84㎡, 총 809세대 규모의 대단



▲양주 옥정신도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지로 지어진다. 단지는 계약금 5% 무이자 대출 지원, 중도금(50%) 안심 확정금리 4.5%(이자후 불체)를 적용해 입주 때까지 비용 부담을 낮췄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투자 가치가 높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도심 속' 블록형 단독주택에 걸맞게 자연환경, 생활인프라를 모두 품은 입지여건을 자랑한다. 독바위공원, 선돌공원, 옥정 생태습지공원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학교, 중심상업지구 등 도심도 가까워 인프라 이용이 편리한 것이다. 인근 옥정중앙공원, 옥정체육공원 등도 가깝다. 인근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으로 접근성도 우수한 만큼 훌륭한

한 채로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또한 인근에 다수 계획된 교통호재도 단지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노선이 예정돼 있으며, 최근 창동역 구간 지하화 문제가 해결된 GTX-C노선 사업도 올해 착공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도 예정돼 있어 프리미엄 상승도 기대된다. 한편,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일대에 위치해 문의: 031-858-9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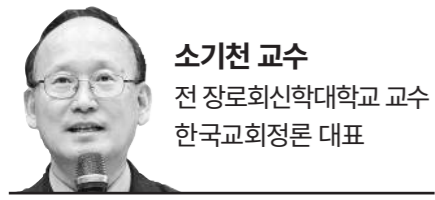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시행/수탁 **모공역실업** 시공 **현대건설** 시행/위탁 **미래개발2**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주종을 보이지 않게 표현하였습니다. *본인 자료에 기재된 개발 계획은 관련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대행사, 시행사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견본주택 개관중
 (견본주택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1-4)

031)858-9800

총회 신약학 백서



소기천 교수
전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한국교회정론 대표

(3) 공개적인 회개

구약말의 흥흥한 풍문과 의지할 곳 없는 민심은 한국교회 성도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부르짖는 회개기도운동을 가져왔다. 어떻게 이러한 통성기도를 통한 회개가 가능하였을까? 최초 우리말 번역인 <예수성경 누가복음 전서>는 한국초기교회에서 '통회 자복'이라는 기도운동의 불씨를 일으켰다. 특히 누가복음 3장은 당시 한국교회 성도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성서적 회개의 참모습은 공개적인 회개의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하는 질문이다. 누가복음 3장 10-14절은, 이 질문에 대한 해석학적 적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대답을 줌으로써, 회개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다. 즉 나누어주는 삶(11절), 깨끗한 삶(13절) 그리고 올바른 삶(14절)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공개적인 회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예배 중에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로 비밀에 부치거나 습관적으로 같은 죄를 반복한다. 예수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은 공개적인 회개이다. 언제까지 비밀에 부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형식적인 기도만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도 아시고 또한 알 사람은 다 아는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습관처럼 죄를 짓지 않게 된다.

1907년 평양사경회 동안에 종말론적으로 임박한 심판사상에 직면하게 되자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각종 죄까지도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일들이 교회 지도자들과 평신도를 가릴 것 없이 일어났다. 공개적인 회개는 한국인의 정서에 딱 들어맞는다. 배위량(W. M. Baird)에 의하면, "살인과 간음"뿐만 아니라, "방화, 술주정, 도둑질, 강도, 거짓말 등"과 더불어 "사기, 질투, 멸시, 미움 등" 온갖 죄악들을 낱알이 회개하였다. 스왈론(W. L. Swallen)도 당시의 공개적인 고백 목록들을 "사기, 교

만, 세상욕, 음란, 탐심, 미움, 질투 등"이라고 제시하였다. 무어(J. Z. Moore)에 의하면, 당시에 공개적으로 고백한 회개 중에는 "조혼, 교육, 부정, 주조문제 등"이었다.

이러한 회개는 '통회 자복'의 성격이었는데, 이 같은 사실은 편하설(Charles F. Bernheisel)의 다음과 같은 증언으로 확인된다.

우리는 함께 즐겁게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고 1월 2일에 시작된 겨울학교에 입학했다. 그 다음주 6일부터 15일까지 영성강화와 성령 충만을 위한 저녁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껏 말로만 듣던 광경들을 목격했다. 성령이 정중을 사로잡아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통회 자복하였다.

이러한 '통회 자복'은 서로 죄를 고백하는 공적인 회개의 자리가 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아주 컸다. 이로써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불타기 시작한 사경회가 4월 1일에 개학한 평양 장로회신학교에 옮겨 붙었다. 그는 신학교의 사경회에 관하여 "한 주간 동안 사경회가 활기차게 진행되었는데, 거의 모두가 통회하는 심정으로 죄를 고백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4) 종말론

한국초기교회에는 임박한 심판사상이 만연해 있었다. 이것은 당시에 강성했던 종말론의 영향도 컸다. 편하설(Charles F. Bernheisel)은 1907년 3월 20일자의 일기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세이스의 강해를 다시 읽고 있다. 강해는 놀라웠다. 집에 있는 동안 아내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다.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몰랐다. 정말 새롭고 놀라운 책이다. 요즈음 읽고 있는 이 강해들과 브록스 박사의 마란타(Marantha)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 전전년설을 믿게 되었다. 전에 이 문제를 연구한 적은 없지만 후천년 설을 지지했었다. 지금은 전전년설이 성경적이고 옳다고 믿게 되었다."

이는 종말론에 관한 언급인데, 한국초기교회가 종말론에 관해 혼란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바로 보여준다. 세이스(J. A. Seiss)는 당시 필라델피아에서 활동한 목회자로서 저명한 책들을 쓴 목회자였는데, 특히 그의 요한계시록 주석은 3권으로 발행되어 총1,417쪽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또한 브록스(Phillips Brooks)는 당시에 설교학 강의를 1877년에 예일대학에서 행할 정도로 영향력이 많은 젊은 목회자였다. 이들이 행한 종말론에 관한 강의는 많은 이들의 관심



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종말론에 관한 열기는, 이미 편하설이 자신의 일기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교회에 천년왕국설(Millennialism)에 관한 갖가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천년왕국설은 예수께서 성도와 함께 왕 노릇 하고 최후의 싸움, 일반적 부활, 최후의 심판, 최후의 완성 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론으로서 4가지의 학설이 있다. 첫째, 후천년왕국설(Postmillennialism)은 재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역사 안에 있는 교회로 설립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둘째, 무천년왕국설(Amillennialism)은 재림 후나 재림 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천년 통치를 고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셋째, 전천년왕국설(Premillennialism)에서 재림은 사탄의 속박과 예수의 지상 통치, 성도들의 일시적인 부활 이후에 뒤따라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넷째,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적인 약속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신약전체로 해석하여 마지막 날에 회복될 이스라엘의 운명과 관련을 짓고 있는 주장이다.

이러한 4가지의 천년왕국설은 지난 2,000년 동안에 계속되어 온 교회사에서 제기된 것이다. 과거에 유대인들은 기독교 이전에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 곧 의가 승리하여 보좌에 앉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계가 올 것을 소망하였다. 그러나 유대인의 메시아 신앙은 주전 100년경부터 변화에 직면하였는데, 그 이유는 세상에서 점점 커지는 비판론 때문이었다. 즉,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악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메시아는 이 세상에서 제한된 기간 통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자구의 종말이 올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메시아에 대한 신념에서 천년왕국설의 이론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중시할 때, 천년왕국설은 예수의 교훈이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천년왕국설은 초기 교부의 경우에 정통주의 신앙의 주요한 한 부분으로 신화한 사람들도 있지만, 부정한 사람들도 많다. 천년왕국설이 비판받게 된 것은 약속된 축복에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뒤섞여서 점차 그 해석이 물질적인 것에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천년왕국설을 영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5) 선교사 방위량(W. N. Blair)의 설교: 고린도전서 12장 26-27절을 중심으로

방위량(W. N. Blair)은 1907년 1월 12일(토) 저녁 집회에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가지고 설교하였다. 이는 당시의 설교가 보존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대단히 유용한 지적이다. 방위량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나는 토요일 저녁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자는 그것의 지체이다"라는 구절로 설교를 하였다.>

인용된 성서구절은 영어로 "Now ye are the body of Christ, and severally members thereof."이다 방위량은 1885년에 처음 출판되었고 1901년에 재판되었던 미국표준성서(American Standard Version of the Holy Spirit)를 인용하였다. 그가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한 이유는 "교회에 불화가 있을 때 몸이 병든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어 위해서"이었다. 그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대해 사역하지 않고 미국표준성서를 그대로 인용한 것을 볼 때, 그의 설교는 석의적 강해 설교라기보다는 당시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불화를 넘어서 화합과 연합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에 관한 일종의 주제 설교이었다.

그는 또한 "한 지체가 고난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그것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구절도 인용하였는데, 이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다. 그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얼마나 형제의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미움이 있는지 [그러한 미움이] 전체 교회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아니 그리스도에게까지 고통을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방위량은 고린도전서 12장 26-27절을 근거로 해서 "교회

에 불화가 있을 때 온몸에 병이 든 것과 같고, 한 지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모든 지체가 고난을 당한다."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였다. 방위량이 사용한 본문은 넓게는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사경회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는 긴 시간 동안 12장을 자세하게 언급하였을 것이다. 그 모든 구절 가운데서 방위량은 고린도전서 12장 26-27절을 강조하여 설교하였다. 그는 설교 중에 한국에서 겪은 총기사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간증을 하였다.

<나는 한국에 온 직후에 사냥을 나갔다가 내 손가락 끝에 오발사격을 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모든 한국인들은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손을 들어 보이며서 회중에게 부상을 당한 내 손가락으로 인해서 '내 머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내 몸이 얼마나 아팠겠는지'를 말했습니다.>

그가 이어마리 타국에 와서 손가락 부상으로 불구가 되었으니, 낮은 선교지에서 그가 겪은 심적인 충격이 어떠하였는가? 더구나 사냥을 나갔다가 당한 불의의 사고였으니, 당시 한국인이던 선교사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같은 정서를 고려하여 방위량 자신도 부족한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였을 것이다.

(6) 설교에 대한 반응

이러한 설교는 사경회에 모인 성도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리(Graham Lee)는 "토요일 저녁에 모인 집회가 그 주간의 모든 집회들 중에서 가장 좋았다."고 평가하였다. 방위량은 그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언급되어 있는 '오순절 날'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개인적인 엄청난 죄를 서로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설교의 반응에 관해서, 방위량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설교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에 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간증하였다. 슬픔에 잠긴 한 성도는 다른 사람들, 특히 일본인들을 사랑하는 일이 부족했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당시 방위량의 설교를 들은 한국인들은 개인적인 인간관계 차원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본인에 대해 가졌던 증오도 회개하였다.

방위량은 이미 일주일 지속된 사경회가 막바지를 향해서 가는 시점에서 설교하였다. 임회국에 의하면, 내일 다가오는 주일이 지나면 사경회도 막을 내리게 된다는 시점에서 청중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초조하게 성령을 기다리며" 설교를 들었다고 한다. 당시 저녁연합집회에 매일 저녁 사경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고대하였다.

방위량은 고린도전서 12장 26-27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중에, 회중 앞에서 최초 한국어 번역인 <예수성경전서>로 읽었을 것이 분명하다.

비록 그의 설교 내용은 불행하게도 전해지지 않았으나, 그 본문이라도 알려진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의 설교 본문은 당시에 만연했던 한국인의 민심과 교회지도자와 선교사간의 불협화음을 치료하고자 했던 시도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1907년 1월 13일(주일)에 장대현교회의 장로이며 오는 6월에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길선주도 설교하는 중 하리에 감긴 줄을 보여주면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광경은 당시에 강단 옆에 서 있었던 선교사 맥켄(G. S. McCune)에 의해서도 목격되었다. 길선주와 방위량의 설교를 들은 교회지도자인 강유문과 김씨는 1907년 1월 14일(월) 저녁 집회에서 그간에 쌓였던 상호간의 증오를 고백하며 통곡하였다. 방위량에 의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묶여 우리를 축복할 때까지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 없다고 기도했다(창 32:26)". 당시에 강유문은 방위량의 조사였으며, 김씨는 방위량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평양남자연합회의 임원들 중의 하나이었다. 바로 그날에 길선주도 선교사에 대한 증오를 공개적으로 회개하였다. 15일인 화요일에 장대현교회의 김씨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거슬러 싸운 죄인입니다. 교회의 장로인 나는 강유문 뿐만 아니라, 방 목사를 미워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의 회개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방위량이 "상호간에 시기과 증오, 반목과 갈등이 무너지고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기 위한 설교를 한 것은 시기절절하다. 필자는 다음의 석의를 통하여 당시 방위량이 한국초기교회를 향해서 외친 설교의 내용을 복원하고자 한다. 방위량이 자신의 책에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먼저 언급한 후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언급하였으므로, 필자도 이 같은 순서를 따라 그의 설교내용을 복원하고자 한다. 그가 행한 신약설교를 복원하는 일은 본 연구의 창의적인 업적이다. <계속>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상품 및 구입문의 : 080-082-1234 (수신자 부담)

광고심의필 :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베프로펜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빈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상, 골절통, 염좌통(범통),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있을수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 080-082-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정죄와 비난 대신 따뜻한 칭찬과 격려를

신성욱 교수
아신대 설교학



한 어린 소년이 학교에서 편지 한 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아무도 이 편지가 우리의 삶을 바꿀 줄 몰랐다. 아이는 선생님이 편지를 썼다며, 엄마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잠시 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그를 가르치기에 너무 작은 학교이며,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당신이 아

이를 가르쳐주길 바랍니다." 엄마는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아이를 집에서 직접 가르쳤다. 병에 걸려 죽는 순간까지... 엄마가 떠난 지 수 년이 지나, 아들은 유능한 발명가로 성장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은 엄마의 유품들을 돌아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선생님이 엄마에게 보냈던 그 편지가 놓여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의 아들은 저능아입니다.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퇴학 처분을 내립니다." 그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자신의 다이어리에 다음과 같이 써 내려갔다. "토마스 에디슨은 저능아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이 시대의 천

재로 변화시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이야기다. 만일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선생님이 준 편지의 내용 그대로 읽어주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해보자. 아마도 진짜 저능아로 살았을 것이다. 이와 엇비슷한 얘기가 우리나라에도 있다. 어린 시절 한 사람의 일화가 있다. 경남 산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대주의 중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공부에는 영 취미가 없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도시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 여의치 않았지만, 마침내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단을 했다. 하지만 아들은 68명 중에 68등을 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실망할 것을 염려

해 성적표의 '68'이라는 숫자를 '1'로 고쳐 아버지에게 가져다드렸다. 어실픈 거짓말은 뜻밖의 일로 번졌다. 아버지는 자식의 1등을 축하한다고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마을 잔치를 벌였다. 아들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가장 큰 재산이었던 돼지를 아깝없이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셨던 아버지의 고마운 마음을 평생 지울 수 없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대학교 총장까지 되었다. 그가 바로 경북대 총장까지 지낸 박찬석 박사이다. 세월이 지나 아들에게도 아들이 태어

났고, 그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다. 어느 날 고요한 밤에 아버지와 마주한 아들은 아무래도 아버지께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막았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 듣는다." 아버지는 속은 게 아니고 속아준 것이다. 아들만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속은 것으로 생각하고 일생을 산 것이다. 그런데 그 속아준 게 아들을 훌륭하고 멋지게 만들었다. 만일 아버지가 아들이 등수를 속인 것을 알고서 심하게 꾸짖고 매를 대었다

면 어떻게 되었을까? 박사와 총장은 커녕 공부를 포기한 채 일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비참하게 살지 않았을까? 에디슨의 경우는 어머니가 아들을 속임으로써 그를 위대한 발명가로 만들었고, 박찬석 총장의 경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속아 줌으로써 그를 박사와 총장으로 빛어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때로는 아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속임 줄도 알고 속을 줄도 아는 지혜가 필요함을 절감케 하는 두 이야기이다. 우리 모두 정죄와 비난 대신 따뜻한 칭찬과 격려로 이 나라에 가치 있는 인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말씀대로 행하여 받는 복

박진호 목사
엠펙스커버우즈
한인교회



시편 119:1~8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여호와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시119:2) 신자가 율법을 읽고 그대로 실천할 때에 얻는 유익을 묘사한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길다. 히브리 알파벳으로 각 문단의 첫절을 시작하는 알파벳시편(acrostic)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자음만 22자인데 각 철자마다 8절씩 한 연을 이루어 총 176절로 구성되었습니다. 히브리 문학의 특징대로 반복 평행법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규례 등은 모두 율법을 나타냅니다. 첫째 연(1-8절)은 첫 알파벳인 알렐으로 시작하는데 주제는 말씀대로 행하여 얻는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자의 표현 그대로 옮겨봅시다. 첫째,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합니다.(3절) 둘째,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않습니다.(6절) 셋째,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웁니다.(7절) 그래서 빛채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7절) 거기도 기도 형태인 해도 내 길을 굳게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6절) 지금껏 많은 한국교회에서 배운 신앙의 유익과는 많이 다릅니다. 잘 믿으면 현실적으로 크게 행통한다고 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잘 믿는 것을 풀어쓰면 교회생활 성실히 하고 기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긴 해도 그것도 따지고 보면 윤리적으로 불신자보다 착하게 사는 정도인데다 그보다는 교회활동에 열심을 내는 것이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의 거의 전부입니다. 구약 시대 신자도 잘 믿으면 현실적 복을 받는다고는 일반인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게 되고, 그럼 자연히 부끄러울 일이 없으며, 말씀을 실천하여 진리임을 깨달음으로써 주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고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주님 말씀만 바로 가르쳐도 지금처럼 성경이 말하지 않는 복을 신자들이 추구 내지 기대할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목회자가 자기 생각을 주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들이 기대하는 것에 맞춰 왜곡했다는 뜻입니다. 현실적 복을 받는다고 해야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리고 그 결과 목회자가 얻는 이면저면 유익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내 도덕적 종교적 행위대로 비례하는 보상을 그분께 전혀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의로워지고 부끄럽지 않게 된 것만으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 말씀대로 살 때에 만 내 길이 굳게 정해집니다. 현실 행동을 목적으로 주님을 찾거나 심지어 그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행통이 없으면 의심 불만에 빠집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로 치장만 했지 사실상 공중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죄로 타락한 세상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불신자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어준 양심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기준이 없는 인생 길은 결코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기자의 마지막 기도를 보십시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잘 믿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라는 불만과 정반대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버리면 불의를 행하게 되고 인생 길이 굽어서 요동치며 무엇을 하든 부끄러워지며 주의 지혜에는 무지하여 어리석은 자기 생각만 고집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너무 싫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아니면 현실에 행통과 풍요이 부족해 남들보다 뒤쳐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뜨겁게 기도만 합니까?

나는 질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서병채 목사
케나 엠빈대학교 총장

제목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기억하기는 좋은 것 같아서 그대로 붙였다. 한국에서 "사촌(가까운데 있는 사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니 그대로 직역한 것도 있지만, 좀 고급영어라면서 "I envy, therefore I am."이라고 적혀있는데, 라틴어 Invidia ergo sum에서 온 말이라고 했다. 즉, 나는 질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결국, 인간의 시기, 질투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같다. 어릴 때 학교에서도 보면 반에서 1, 2 등 하는 애들은 미움받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곤 했다. 남이 잘되는 것은 못 봐주는 것이 인간인 것 같다.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예가 있는데, 필리핀에는 크랩 멘탈리티(Crab mentality)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내용인즉, 게(crab)는 어디(바케스나 나무통)에 넣어 놓든지 올라가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단 아래 있는 게(crab)들이 잡아당기지만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붙잡고 잡아당기니 못 올라간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 사의 한 단면을 잘 표현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우리는 왜 잘되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는가. 한마디로 상대방의 성공은 곧 나의 실패라고 느껴져서 그런 건 아닌가요? 자신들이 뒤쳐진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은 아닐까? 어떤 작가가 베스트셀러를 계속적으로 내게 되었다. 그랬더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더라는 것이다. 심지어 친척들도 연락을 잘 안 하오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런지 어머니께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 "너는 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너의 성공이 곧 그들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지." 결국, 시기 질투는 남이 잘되는 것은 보기 싫고, 그것이 실패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베테 미들러(Bette Midler)라는 사람은 "성공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그것을 함께 즐겨주고 행복해하는 사람을 찾는 일이다!"라고까지 얘기했다. 그만큼 성공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만 주고 말 것인가! 사실 성경에서도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하라고 하지 않는가! 흔히 기쁨은 함께 하면 두 배, 슬픔은 함께 하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도 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될 때에 축복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사실 크랩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한

반면에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남을 칭찬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보자. 인간의 두뇌활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칭찬이란 인간의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조사해본다고 한다. 그랬더니 남을 칭찬할 때에 세로토닌(serotonin)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생기는데 인간의 감정, 수면, 식욕의 조절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므로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는 것이다. 즉 "남을 칭찬할 때에 이런 현상이 연구자들이 더 진행하면서 그러면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살펴봤더니, 칭찬하는 사람과 똑같은 양의 세로토닌(serotonin)이 생기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더 연구를 해보니, 남을 칭찬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제 삼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이다. 결국, 칭찬이라는 것이 있게 될 때에는 칭찬하는 자, 그 칭찬을 받는 자, 또 그것을 옆에서 구경하는 자 모두에게 행복감을 주더라는 것이다. 결국,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화감을 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다.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주위까지 파급력이 있으니까 말이다. "당신이 행복을 원하는가? 평화를 원하는가? 삶에서 성취감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성공에 함께 기뻐하라!"는 말까지 있다.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환경부 |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복음 전파와 문화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분자유전학·약리학교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서사(메타네러티브)를 창조-타락-구속-완성의 4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 우주와 모든 생명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것의 최고봉이 인간의 창조이며, 그 인간에게 첫 명령을 내리셨는데 우리는 이를 문화명령 혹은 생육/문화명령이라 부른다.

문화의 창조를 위임받은 인간(창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6-28)고 하신 것이 문화명령의 내용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일부원처의 가정을 그 명령을 수행하는 기본 단위가 되게 하셨다.

아담이 처음으로 한 일은 모든 생명체에 정체를 부여하는 창조적인 일이었다. 현대의 학문으로 말하자면 생물분류학에 해당한다. 또 자신의 배필인 하와에 대한 찬사는 문학적 창의성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감당할 창의적인 능력을 부여하셨고, 그것을 세상 속에서 발휘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하셨다.

문화 파괴자가 된 인간(타락): 그러나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도 파괴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인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인간은 농경문화와 목축문화를 형성하며, 수금과 통소 같은 악기도 만드는 원래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적 사역을 이어갔다. 그러나 죄로 인한 살인과 성적 타락의 문화로 노아의 홍수라는 처벌과 하나님께 대적하는 바벨탑의 문화로 인해 언어가 혼란해지며 지면에 흩어지는 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원래 부여하신 창조적인 문화와 함께 죄로 인한 파괴적인 문화도 인간 세상에 공존하게 된 것이다. 이후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가 형성한 문화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복음인 예수(구속): 복음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셨으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죄 씻음과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이를 전파할 임무가 주어져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따라서 때때로 세속의 문화를 복음의 전달 매체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복음 전파가 방해받는다든가, 주변의 연약한 지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복음에 뿌리내린 문화(완성): 수년 전 세계관 강의 후에 받은 질문이 생각난다. 어떤 청년이 전자댄스음악(EDM, electronic dance music)이 유행인데 이런 음악을 교회찬양에 도입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쉽게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사실 음악, 미술, 시 같은 예술은 가치중립적인 수단이다. 거기에 어떤 생각을 실어서 전달하느냐에 따라 다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물론 익숙한 장르의 음악

을 매개로 복음의 메시지를 실어 전달하면 복음 전파에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초신자 중에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주로 접하던 댄스클럽을 떠올려 시험에 들게 한다면 오히려 복음 전파에는 역효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아닌 우상에 뿌리내려 형성하는 문화의 열매는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세속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다.

미국의 신학자 존 프레임(John Frame)은 “문화란 사회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신의 이상을 따라 만드는 것이다. 이상을 제시하는 것은 믿음이나 신념, 즉

종교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예배하는 것이 세속적 문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예배가 기독교 문화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화란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어 보여주는 방식이다.

타락한 인간은 죄로 일그러진 형상과 악한 마음의 산물이 드러나는 문화를 형성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렇게 드러난 문화를 통해 스스로 혹은 후속세대를 지배하면서 우상 숭배적인 문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처럼 복음에 뿌리를 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새로운 문화로의 변혁에 앞장서야 한다.

하멜과 박연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대신대 총장



50년도 더 넘었다. 나는 동승동 서울대학교 앞에 사시는 국사학자인 이병도 박사님을 방문했다. 이병도 박사는 한국 국사학계의 어른으로서 불어판으로 된 <하멜 표류기>를 우리말로 번역했다. 나는 이 박사님을 찾아뵙고 하멜 표류기를 화란 원문에서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이 박사님은 상당히 기뻐하면서 그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사실 나는 실력도 안되었지만 무모한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그 중에 나는 <화란어 문법 연구>라는 책자를 발행하고 있었고, 또 한국 외국어 대학교 화란어과 창설 교수로 일하고 있었기에 은근히 자기 과시를 해본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망용이요, 부끄럽기 그지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멜 표류기 원본을 본 일도 없거니와 원본이 있다 한들 17세기의 화란어를 읽을 수 없었다.

<하멜 표류기>는 사실상 조선이란 나라의 사회상을 서양에 알린 최초의 책이었다. 헨드릭 하멜의 표류기는 1668년에

화란어로 출판된 후 불어, 독일어, 영어로 번역되었으나, 당시 조선의 민낯을 세계에 알리는 최초의 책이 되었다. 하멜 표류기 내용에는 1653년 1월에 하멜 일행이 화란을 출발해서 6월 1일 바타비아(Batavia)에 이르러 수일 머문 후 14일에 스페일(Sperwer)이란 배를 타고 대만에 잠시 들러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 제주도 서귀포 부근에 파선했다. 선원 64명 중 28명은 익사하고 배의 서기인 하멜을 비롯한 36인이 제주도에 표류했다. 그리고 그들은 조선 관원에게 잡혀 왔고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양에 있는 외국인 관현 한 분을 데려왔다. 그가 바로 이미 십수년 전에 풍랑으로 조선에 정착한 박연(朴延, Jan Janse Weltevree)이었다. 하멜 일행은 고향 사람을 만났고 네덜란드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가웠다. 하지만 박연은 하멜 일행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하멜 일행은 죽을 고생을 하고 결국 전라남도 강진의 병영에 유배되었다가 14년 만에 조선을 탈출해서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고국으로 돌아가 이 표류기를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하멜은 조선의 지리, 풍토, 산물, 정치, 군사, 법술, 종교, 교육, 교역에 대해서 하멜이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집필했다.

필자는 금번 여름에 비르고 별려서 강

진으로 가서 병영 앞에 전시된 하멜의 행적을 살폈다. 내가 하멜의 표류기를 관심 있게 본 것은 헨드릭 하멜과 선원들 대부분이 화란 개혁교회(Gereformeerde Kerk)의 성도들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스위스의 요한 칼빈(John Calvin)의 종교개혁 이후, 17세기에 가장 개혁교회의 사상 체계를 널리 확산시킨 곳은 사실 화란이었다. 그 이유는 화란 왕국을 건국한 윌리엄 오렌지(William Orange) 공이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백성들은 오렌지 장군을 국왕으로 추대했고 오렌지 국왕은 스페인의 카톨릭의 신앙을 포기하고 칼빈주의 신앙으로 나라를 세우겠다고 선포했다. 그래서 화란은 종교개혁 이후 가장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 사상이 발전한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국제종교회의로서 Dort 총회(Dort Synod, 1618-1619)를 열고, 6개월 동안 154회의 회의의 거쳐 <칼빈주의 5대 교리(Five Points)>를 만들었다. 때문에 그 시기의 화란 사회의 분위기는 대다수 사람들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질 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조선에 <박연>도 오고, 함참 후에 <하멜> 일행이 풍랑으로 오게 되었다. 당시 조선은 세계와 담을 쌓고, 외부와의 정보나 교류가 전혀 없던 시기였고, 오직 양반계급의 유교적 세계관에 갇혀 있을 때였다. 박연은 선교사도 아

니고 목사도 아니었으나 당시로는 철저한 개혁주의 신앙(Reformed Faith)를 가졌던 것은 틀림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선교를 했다는 기록도 없고 종교 활동을 한 일도 없으나, <효종실록>에는 박연을 가르쳐서 늘 진리를 말하는 듯 보였다고 한다. 즉 <有類道者談>이라고 말끝마다 도를 뒀는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했다. 그리고 박연은 자주 <順天者興, 逆天者亡> 하늘을 순종하는 사람은 흥하고 하늘을 배신하는 자는 망한다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이는 아무래도 기독교의 복음을 유교식으로, 또는 맹자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박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국제결혼을 하였고 자녀들도 낳았다고 한다. 50여 년 전에 이병도 박사와의 대화 중에 인천에 백씨 성을 가진 분의 외모가 꼭 서양 사람처럼 생겼는데 혹시 박연 후손이 아닐까 했다.

일본 기록을 보면 후일 하멜 일행이 조선을 탈출해서 일본 나가사키로 가서 경찰에게 심문을 받을 때, 일본 경찰이 질문하기를 “너희들은 너희 나라 종교인 크리스찬이나(吉利示徒, Kirishitan)”라고 물었을 때, 하멜 일행은 다같이 “野野(ja, ja)”라고 대답했다. 즉 “네,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특히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동아시아 언어와 문화 교수인 레드 아드(Redi Ledyard)의 교수의 책 <화

란 사람, 한국에 오다. The Dutch Come to Korea>에 보면 항해 도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이 몇 번 있다. 한국에 기독교 신앙이 언제 전파되었는지 여러 학설이 많다. 한국에 기독교 신앙이 전래 된 것은 1884년 미국 의사 알렌(Allen) 선교사, 그리고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주포에 도착함으로써 시작된 것을 정설로 생각한다. 그런데 효종실록에 화란

사람 박연 즉 벨트브레가 말했던 전도가 조선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한 것도 맞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유교적 관점으로만 이해했다.

17세기 화란 개혁교회 성도였던 하멜 일행과 한국에 귀화해서 화포 만드는 일에 공헌한 박연이 나름대로 <順天者興, 逆天者亡>이란 맹자식의 말은, 이 나라에 설로 생각한다. 그런데 효종실록에 화란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구독문의 02-6085-8166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광고문의 02-6082-8165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한반도는 자유민주 복음통일국가로 거듭날 것: 새로운 도약, 인재 양성(5)



신동만 장로
국군중앙교회
예비역 육군소장
정치학 박사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섰다. 대한민국을 다시 반석 위에 놓을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기대가 큰 이유다. 백년대계를 세울 것을 기대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헌법 가치에 의한 법과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며, 무너진 안보를 튼튼히 세우는 일이다.

경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조를 유지하는 한 대한민국 국민은 잘할 것이다. 지금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을 달성할 것이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반도체와 2차전에서 엄청난 발전과 세계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으로 세상은 변화할 것이며 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세상에 대한민국이 중심에 설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능력과 인품은 물론 역사 인식과 창조 의지를 분별하는 안목과 국제질서를 통찰하고 거시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아울러 각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데 집중하도록 교육제도를 뿌리부터 개혁하는 지도자이면 좋겠다.

이 땅의 유능한 젊은이들은 5대양 6대주로 나가서 세상을 주도하도록 한국교회와 기성세대들

이 다리를 놓아야 할 것이다. 세계의 중심이 대한민국이고 동양의 중심이 대한민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 있는 인재가 더욱 필요할 때다.

손자병법 모공 편에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 불태(百戰不殆)요, 부지피지기(不知彼知己)면 일승일부(一勝一負)며, 부지부지(不知彼不知己)면 매전필패(每戰必敗)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부전이굴인지병이면 선지선자야(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요, 백전백승은 비선지선자야(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라 기록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며,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한번은 승리하되 한번은 패배한다는 말이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백전을 싸우면 백번을 패한다는 말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전쟁에서 적도 알고 나도 알아야 승리한다는 것을 강조한 방법이다. 최상책은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며, 피흘리며 백전백승하는 것은 차선책이라는 말씀이다. 손자는 일찍이 이를 간파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를 대신 말씀하고 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삼상 17:45-47)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임을 기록하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권세와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며 이미 이겼음을 선포한 것이다.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 된다. 우리 앞서 하나님의 천군천사와 불 말과 불 병거가 대적하는 모든 자를 진멸했기 때문이다.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시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신31:8)고 말씀하셨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물로 씻으시기 때문이다.

성경이 중요한 이유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친다. 아버들이 가르치며 어른들이 가르친다. 신명기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할 것을 기록한 글로 가득 차 있다.

모세는 이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래로 만들어 후대에 전수하도록 강조하였다. "옛날을 기억하라 여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다"(신32:7)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손주에게 가르치며 집안 어른과 동네 어른들에게 묻고 가르침을 받도록 강조하고 있다. 회당이나 교회에만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지금도 유대인은 13세 성인이 될 때까지 모세 5경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성

인식에 모세 5경 중에 하나를 암송하고 이를 통과하면 온 집안 식구들이 돈을 모아 축복해 주는 의식을 행한다. 이들은 이 종자돈을 모아 사업이나 무역을 하여 돈을 벌며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들을 돕는다. 우리 민족이 본받아야 할 점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태초부터 택하시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가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6-28)고 말씀하셨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믿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2:9)고 축복하였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말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를 축복하며 여러분의 약한 것들 곧 병마와 가정사와 인생사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

원한다. 아직도 천국 복음을 모르는 분들은 이 시간 모든 죄를 짚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란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찬미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찻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환절기 '큰 일교차'... 식약처가 꼽은 감기에 좋은 식품은?

일교차 크면 면역력 쉽게 저하
도라지·대추 등 감기 완화 도움

아침저녁 간의 큰 일교차는 피부와 근육 에너지를 고갈시켜 우리 몸의 면역 세포 기능을 저하시킨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감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환절기 감기를 막아주는 데 생강, 콩나물, 마늘, 도라지, 대추 등 5가지 식품이 도움이 된다.

생강은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특유의 매운맛을 내면서 체내 혈액순환을 도와 몸을 덥혀주는 효과가 있다.

콩나물에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비타민 B와

A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향상에 좋다. 콩나물에는 콩으로 있을 때는 없던 비타민 C가 함유돼 있다. 예로부터 아재가 귀한 겨울철에 콩나물은 귀중한 비타민 공급원 역할을 했다. 콩나물 100g에는 16-20mg의 비타민 C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늘은 알리신이 풍부하다. 알리신을 비롯해 매운맛 성분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생마늘을 그대로 씹거나 썰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효소 분해에 의해 강한 냄새를 낸다. 마늘은 여러 요리를 만들 때 고기 비린내를 없애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도라지에는 염증 및 가래 완화와 면역력 증강에 효과적인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사포닌 성분은 인삼의 주요 성분 가운데 하나다.

도라지는 봄에서 가을에 걸쳐 채취하는데 날것을 그대로 먹을 수도 있고, 말려서 먹기도 한다.

대추는 녹말, 주석산, 타닌, 당 등 풍부한 영양소를 갖춘 식품으로 생대추를 많이 먹으면 몸에서 열이 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방에서 대추는 감초, 생강만큼 자주 사용되는 약재이다. 한약을 다릴 때에는 모든 약재와 잘 어울리며, 이노제, 감성제, 진해제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진해제는 기침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약물을 말한다. 동의보감에서 대추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는 것으로 설명한다. 대추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수축냉증이 있거나 배가 차가운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한방에서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갈근탕에는 작약, 계지, 감초, 갈근(쥬뿌리), 대추가 들어간다.



조국을 위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독일 근로자 파견 60주년 기념

독일 거주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초청합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 외국의 차관이 절실했던 대한민국은 1963년부터 독일에 근로자(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견 근로자들을 담보로 대한민국은 독일로부터 차관을 얻어 오게 됩니다.

그때 받아 온 차관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건설하는데 마중물이 되었고, 오늘날 조국의 산업화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들은 1,000m 깊이 탄광의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참으며 석탄 채굴로 젊은 청춘을 희생하였고, 간호사들은 독일의 병원에서 온갖 힘든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면서 조국과 가족을 위하여 모진 고생을 감내하셨던 대한민국 산업화의 영웅들입니다.

이제 그분들은 팔손이 넘은 고령의 나이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입니다. 독일에 살아남은 파독근로자 중에는 고국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면서 아직 고국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있으며,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그분들을 초청하여 고국의 발전상을 보여드리고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하는 행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호소합니다.

초청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파독근로자초청 시민추진위원회**
- 고문: 강우영, 구본철, 김시약, 김정서, 이상훈, 김호일, 박동호, 박현재, 박희도, 배인식, 백 일, 성중경, 송중환, 송현순, 신현상, 정재호, 이근호, 유 현, 윤, 윤, 윤명원, 이규택, 이병수, 이병화, 이창호, 이한철, 전용만, 조규세, 차오성, 한성심
 - 자문위원: 강군열, 강석정, 권영철, 김은구, 김일권, 김일주, 김태연, 김형철, 도태우, 박성원, 박선길, 박찬성, 박진진, 신성환, 윤재용, 이재민, 이희철, 임요한, 임종두, 조대한, 조원홍, 지대중, 최경구, 하형규, 한규성, 한요한
 - 공동위원장: 강도용, 강영근, 경철수, 김중대, 김태진, 류승남, 배은희, 손병덕, 송재영, 신동훈, 이동수, 이두우, 이종민, 이진호, 지광선, 최명진, 황기식
 - 추진위원: 가용성, 권태성, 권유정, 김길수, 김다혜, 김병규, 김성진, 김수현, 김명길, 김영길, 김용천, 김원하, 김은진, 김인희, 김정남, 김철호, 노요한, 류두환, 목돈균, 민영생, 박경만, 박노아, 박윤성, 박종호, 박철성, 박평서, 박학기, 방현강, 배재경, 백태현, 성현오, 송용팔, 안성원, 안종길, 양국용, 양유식, 영동용, 오기복, 오미라, 왕영근, 우희삼, 유관모, 유교숙, 윤상근, 윤치환, 이 훈, 이규영, 이서규, 이덕주, 이영학, 이육희, 이원준, 이종석, 이종현, 이창호, 이한승, 장래인, 정순일, 정신일, 정주문, 전지현, 정봉호, 정우혁, 정지영, 정창욱, 조규연, 조승일, 조양진, 진유신, 최승원, 최영오, 최영호, 최진희, 최춘식, 최태수, 표세철, 하용근, 한정운

부동산

서울 강서구 단독교회매매

-소재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연면적: 279.8(평)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
-매매가: 27억

연락처 ☎ 010-4621-6428

경북 포항 교회 매매

-소재지: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리
-대지면적(건축면적): 총 212.35평
-매매가: 3억 3천

연락처 ☎ 010-6780-0467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회매매

-소재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면적: 대지면적 460평
-주차대수: 약 50대
-매매가: 15억원 (융자 8억)

연락처 ☎ 010-3672-0680

부천교회매매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부근
-면적: 대 423㎡ / 건 364㎡
-매매가: 22억

연락처 ☎ 010-9924-7571

대구 개척교회 임대

-소재지: 대구 달서구 한실로6길130 청솔빌딩402호
-면적: (약40평)엘리베이터 가동중
-해당층수: 4층
-임대료: 3000/월88만원(부가세포함)

연락처 ☎ 010-7506-1009

성남 분당구 서현동 교회임대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면적: 330평
-임대료: 30,000 / 1,800만원
-시설: 주차장, 엘리베이터, 로비

연락처 ☎ 010-3702-3251

서울 노원구 교회임대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건물면적: 146㎡(44평)
-임대료: 2,500/ 90
-시설비: 300만원

연락처 ☎ 010-3899-1626

경기 수원시 교회임대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매물면적: 86평(5층 건물 중 지하)
-임대료: 보증금1000만원/ 월세89만원 (부가세 및 관리비10만원 포함)

연락처 ☎ 010-3283-4047

경남 양산시 찬양산 기도원 매매

-소재지: 경남 양산시 어곡동 1981번지(대지)외 2필
-면적: 총 3필지 약 1만평.
-매매가: 6억 (대출1억 별도)
-주차: 30대 가능

연락처 ☎ 010-6208-3698

부산교회매매

-소재지: 부산 기장군 정관 신도시 부근
-면적: 대 208㎡ / 건 146㎡
-매매가: 5억

연락처 ☎ 010-6707-1374

양평교회매매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면적: 대 552.07㎡ / 건 191.74㎡
-매매가: 3억 5천

연락처 ☎ 010-9218-4375

인천시 교회임대

-소재지: 인천시 서구 검암동 부근
-면적: 건 132㎡
-임대료: 1000/88
-시설비: 800만원

연락처 ☎ 010-2510-0769

경남 창원시 교회매매

-소재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근
-면적: 건 215㎡
-임대료: 3000/66(시설비 1500만원)

연락처 ☎ 010-9363-1400

성남/판교 교회부지매매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부근
-면적: 1112㎡ (336평)
-매매가: 66억

연락처 ☎ 010-5423-0159

신문 공고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천영실(520607-2*****) 2019.5.30. 사망
최후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로45번길 14 (경화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3년단319 상속한정승인(부사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3. 6.26.
○ 청구인: 천영철
○ 공고기간: 2023. 10. 4. ~ 2023. 12. 4.
○ 신고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로45번길 14 (경화동)

2023. 10. 4.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조연남(281105-2*****) 2019. 1.8. 사망
최후주소: 순천시 송광면 유경길 51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3년단10186 상속한정승인(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3. 6. 22.
○ 청구인: 1.이강희 2.이강근
○ 공고기간: 2023. 10. 4. ~ 2023. 12. 4.
○ 신고처: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5, 7층 (신정동, 동진빌딩) 법무법인 강함 변호사 최희진

2023. 10. 4.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미영(570918-2*****) 2020.10.11. 사망
최후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1길 7 (암사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3년단177 상속한정승인(수원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3. 6. 20.
○ 청구인: 이다연
○ 공고기간: 2023. 10. 4. ~ 2023. 12. 4.
○ 신고처: 경기도 시흥시 매화1로 61, 111동 501호 (매화동, 하이드파크)

2023. 10. 4.

상속한정승인공고(심판결정)

망 김형민(650220-1*****) 2019.9.1. 사망
최후주소: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11가길 62 (성북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 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2년단8518 상속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3. 6. 21.
○ 한정승인결정(심판결정)일: 2023. 6. 7.
○ 청구인: 1.김영규 2.김지현
○ 공고기간: 2023. 10. 4. ~ 2023. 12. 4.
○ 신고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15층(서초동, 법조타워)

2023. 10. 4.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문화 목회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본원은 확실한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목회자, 선교사, 기관 사역자들과 같은 전문 목회 사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도사 양성 과정 (총회신학)

신학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례 받은 자 소명자 1년 3학기 운영 목회자 사모 목회경력 인정
목회학		
여목회학	2년	
성경연구		

목사 양성 과정 (목회연구원)

신학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학 및 대학졸업자 1년 3학기 운영 성경지도사 위원 등록
목회학		
선교학	2년	
기독교상담		

목사 심화 과정 (목회학술원)

신학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원 및 신학대학원 졸업자 총회신학연구원 교수로 활동 성경교육사 위원 등록
목회학		
선교학	2년	
기독교상담		

통신과정

나와서 수강할 없는 소명자를 위한 과정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공부하여 능력별로 졸업

학적복원 프로그램

- 출신학교가 없어지신 분
- 개인사정으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시는 분

자격증 과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식 등록 민간자격증으로 목회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과정입니다. (청소년목회상담사, 기독교상담사, 도형심리상담사 등)

• 본원은 장학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 본원은 재학 중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졸업 후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사로 임직할 수 있으며 선교사 지망자는 파송합니다.
<미국 신학대학교 편입하여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목사 안수 및 총회 가입도 가능합니다.>

074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220 7호선 신동역 3번출구
☎(02)849-9395 www.hdts.or.kr

교단 및 노회 탈퇴 공고

본 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예장)에서 교회와 목사 회원 탈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민교회
김성일목사 외 교인 일동

유대력 탁상용 달력 무료 보급

-탁상형 달력 (230x165)
-현재 사용하는 그레고리력 표기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보급
-1세기 초대교회 관련도서 6종도 함께 발송
-주문방법: 주소/성함/원하시는 부수/전화번호(꼭 기입)
-비용은 택배비 3,000원만 착불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 혹, 택배비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택배 무료요청' 메시지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 010-4009-1611

나이지리아로 간 외과 의사 이야기

신간 '아프리카의 빨간 지붕 병원'



의료선교는 의료를 통한 섬김과 의료를 통한 복음 전도이다. 병든 자, 특히 가난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 의료선교의 하나의 큰 목적이며 병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일이다. 이재혁 선교사(한국누가회)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2010년부터 파송되어 지금까지 현지에서 외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본 도서는 예고 없이 타지는 이슬람의 테러와 종교 갈등으로 술한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곳에서 부르심을 따라간 저자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섬기며 모든 순간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한 의료 선교사의 삶과 하나님 은혜의 발자취를 그려내고 있다. 저자는 책 속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늘한 새벽 공기에 몸을 떨며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 그저 하나님을 불렀다. 아프지 않았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였다. 병을 고쳐주신다는, 살려주신다는 응답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기도할수록 뚜렷해지는 생각이 있었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하는 원인은 아니었다. 병든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즉 그분의 목적은 무엇일까였다”고 했다.

이어 “소중한 자녀가 학교에 가다가 총에 맞아 죽고, 부모가 예배를 드리다가 폭탄 테러로 죽고, 친구가 길을 가다가 맞아 죽었는데도,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치안을 책임지는 군인과 경찰이 오히려 나쁜 짓을 하는데도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참 어려운 일이다. 이슬람과 기독교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고난과 고통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슬람은 성전(聖戰)을 주장하며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논리를 내세우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해할 수 없는 박해와 고통을 당할 때, ‘더 큰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조스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전쟁터 같은 일상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압박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기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살렸다는 나의 자존심은 한 시간 만에 곤두박질쳤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더 빨리 치료했더라면…… 수술을 더 깔끔하게 했더라면…… 심폐소생술을 더 했더라면……’ 닥터 갈라디마의 마지막 호흡이 떠나는 순간, 몇

년 전에 남편을 잃고 딸마저 보내는 어머니의 애끓는 기도가 들려왔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했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드려야 할 기도였다. 침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병원에 가서 일할 용기가 생기길 기도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직원들 가운데 아팠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 코로나인지 말라리아인지 아무도 모른다. 단지 사망이나 심각한 경우가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이 폐쇄된 3월, SIM은 고위험군과 고령자는 본국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심장 기저질환자인 두 선교사가 끝까지 남아 본부 사역을 지켰다. 공항이 열린 11월,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대표 부부 선교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뛰고 있었다. 어떤 현신이 SIM 나이지리아 120년의 사역을 이어간다. 대표의 아내인 하디다가 이렇게 말했다. ‘다 철수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코로나가 대부분 사람들에게 치명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보이는 한 걸음만큼 걸어갔는데 앞에 계신 주님이 뒤돌아보며 미소 지어주시는 것 같아 위로가 됩니다’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10월, 작가들의 말말말



모든 성도는 변증학자다. 기독교 변증은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학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한다. 신학은 전문적이지만 동시에 대중적이다. 세계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피조물이 마땅히 창조주를 더 알기 위해 애쓰고, 더 찬미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다. 여기에서 평신도라고 차별을 둘 수 없다. 루터는 인간의 선한 공로가 구원의 가능성을 줄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완전히 배격한다.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순간 기독교 변증은 실패로 돌아간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공로를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곧 기독교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 불신자들은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한 도구로 인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것에 반대하여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는 오직 은혜를 강조해야 한다. 자연적인 능력으로 획득하는 은총이란 없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될 때만 가능한 은총이다. 김요환 '변증이 신학이다'



그렇게 신앙의 외형을 조금씩 갖춰가면서 우상숭배는 하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절에도 안 가고, 영적으로 더러운 곳도 안 가고, 노래방도 안 가고, 꽤나 거룩한 모습을 갖췄다고 여기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 거룩한 모습은 갖췄는데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는 것이다. 나의 지난 날의 신앙을 보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열과 성의에 따라 복이 내려오기를 간절히 원했다. 물론 복의 기준은 재정이었다.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드린 헌금과 열성에 반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꺾여 갔었다. 천국 열쇠는 사람과의 마음을 열고 닫는 것이라 하고 싶다. 내가 열고 닫는 주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열쇠 자체인 것이다. 주님께 민감하고 예민할수록 열쇠는 만능이 되리라. 주님이 다 하실 테니 말이다.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바로 사과하고 바로 앞도려야 하는 게 답이다. 답을 알아도 답대로 살아갈 수 없기에 다시 자세를 낮추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공이면 '내 신앙의 뒷모습'



“신교사라면 신교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인지, 지금의 저의 모습이 부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주님께 조용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찬양의 가사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지금 저의 모습도 기쁘게 받으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기 에, 제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며, 어떤 사역보다도 주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삶을 통해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탁지일 '보내심'

소망교회,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한다

소망교회(담임 김경진 목사)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교회의 대응과 지역사회 지원 활동을 정리한 백서를 교회 창립 46주년 기념주일인 10월 1일 발간한다. 이 백서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의 대응 전략과 방역 조치, 그리고 교회 성도 및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활동 등이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종로 때까지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통해 새로이 열게 된 온라인 예배와 교제 모임, 그리고 사회봉사와 국내 및 세계 선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평가 및 제언들도 함께 수록했다. 김진영 기자

아울러 백서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및 당면한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김경진 담임목사의 인터뷰와 그 당시 교회 각 분야에서 겪었던 상황에 대한 성도들의 간증도 담겼다. 교회 측은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교회와 신앙생활 등을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다채로운 신학 전통과 영성 추구하는 출판사 '비아', 설립 10주년 예배

10월 8일 성공회대학교교회에서 행사 진행

현재 비아는 교단의 차이, 신앙의 유무를 넘어서서 그리스도교 공통감각을 키울 수 있는 저작들을 만들어온 기독교 출판사 비아(Via)가 설립 10주년 기념 예배를 개최한다. 이들의 10주년 기념예배는 10월 8일 성공회 대학교교회에서 개최하며, 비아 출판사의 회원 3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비아(Via)는 라틴어로 '길'이나 '방법'이라는 뜻이다. 출판사 측은 출판사 명에 대해 “책은 끝나지 않았고 탐구도 끝나지 않으니 길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문장으로 설명한다. 이들은 평신도와 신학생, 사목자, 인문독자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리스도교 교양서, 현대와 호흡하는 교회 운동을 뒷받침하는 저작, 두껍지 않으면서도 깊이를 갖춘 신학적, 영성 에세이를 만들고, 기획하고 있다. 비아의 특징은 성공회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성공회 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를 비롯한 다양한 기독교 저작을 출

판하는 것으로, 이들은 “모든 그리스도인 신앙의 성숙을 돕는 책을 만든다”라고 한다. 한편, 2021년 비아 출판사는 '비아 활용방법'이라며 자신의 책들을 몇 가지 카테고리로 소개한 바 있다. 이들은 '신학 입문자들에게 지적 도움을 주는 책들'로는 '교회, 그리스도교, 쇠산 카에르케고어, 칼 바르트, 십자가, 부활' 등을 추천했다. 이어, 기독교 전통의 풍성함을 소개하는 '인문독자와 지식을 위한 교양 그리스도교 서적'으로는 '예수, 역사와 만나다, 그리스도교와 만나다, 성서와 만나다' 등이 있다. 학계의 파란을 일으킨 도전적인 작품들로 '기독교 신앙을 다시 묻는 현대신학적 제언 주는 저작'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신학, 정치를 다시 묻다, 바다의 눈물, 종교신학 강의' 등이 있다. 신학사에 발자취를 남긴 대가들의 소품집으로 '조지신학 서론, 우리 아버지, 사적이며 공적인 신앙, 워크, 카오스, 그



비아 출판사의 주요 저작들 모습. ©비아 웹사이트 리스도교' 등이 있다. 신앙생활과 영성 함양을 위한 기도문 모음집으로 '프로테스탄트의 기도, 예언자의 기도, 영성가의 기도' 등이 있다. 이 밖에 현대판 교부 '로완 윌리엄스의 저작 모음과 비아의 '에세이 시리즈' 등이 있다. 이상진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경교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훈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준 목사 (양원내안교회)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매일묵상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1)

빌 2: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2: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2: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2: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2:9 이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2: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2: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주님의 팔복 선언입니다. 주님이 누가 복을 받는가, 천국이 누구의 것인가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은 마음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 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마음을 갖는 자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아이들 양육을 고민하며 작년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이에게 좋은 성품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품을 갖게 하려면 부모의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한 해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일생 동안 좋은 성품을 갖지 못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성품을 갖지 못해서 인간관계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목회도 부부관계도 자녀 양육에도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성품을 갖자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이란 무엇일

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가장 좋은 성품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건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1)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1)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하신 예수를 본받고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품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겸손의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이고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3절부터 보겠습니다.
 2: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

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1) 하였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허영이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며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뿌리가 교만입니다. 인간이 교만함으로 하나 되어야 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정욕을 좇아 많은 삶과 관계의 문제가 나타나고 죄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누군가와 멀어지고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먼저 우리 안에 교만의 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맞다고 싸웁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절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득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고 자기

가 더 득을 보려고 욕심을 내면서 다투고 분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교만한 마음과 반대인 겸손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3절 후반부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1)"고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란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는 것, 그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경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에 대한 존중과 경외가 있는 사람, 나보다 남을 낫게 여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상대에 대한 존중과 경외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이 들리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사실 머리론만 지식으로만 그칠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기보다 나보다 남을 낫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죄악 된 우리의 실존입니다. 나보다 나이 많고 나보다 확연히 높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이가 적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매우 힘듭니다.
 <계속> 서광교회 제공

바이블지식IN

흑인 해방신학이란 무엇인가요?

흑인 해방신학은 대체로 인본주의적 남미 해방신학에서 파생된 것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겪는 역경에 그리스도 신학을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신학입니다. 흑인 해방신학은 일반적으로는 아프리카인들에게, 구체적으로는 미국계 아프리카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을 실질적이거나 인지적이거나, 또는 사회적이거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모든 형태의 속박과 불평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흑인 해방신학의 목적은 "흑인들을 위한 기독교를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흑인 해방신학의 주된 오류는 그 초점 대상에 있습니다. 흑인 해방신학은 기독교 초점을 사후 세상이 아닌 현재,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에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정반대로 가르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8:36). 흑인/아프리카인, 그리고 특히 미국계 아프리카인들은 근대 역사 속에서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며 불확한 대우를 받았나요? 물론입니다! 복음의 한 결과로서 인종차별과 차별, 편견, 불평등이 사라져야만 할까요? 이 또한 틀림없이 그래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3:28)! 그렇다면 사회적 불공평으로부터의 해방이 복음의 핵심 원칙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로마서 3:23).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을 분리되어야 마땅합니다(로마서 6:23).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로마서 5:21, 요한일서 2:2),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의 죽음이 죄 값을 지불하기에 실로 충분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고린도전서 15:4).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은 후 천국 가는 것을 보장받습니다(요한복음 3:16).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역경을 겪는 인류를 위한 치유법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고린도후서 5:17),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을 시

작하십니다(로마서 12:1-2). 오직 이 영적 변화를 통해서만 인종차별이 진정으로 정복될 수 있습니다. 흑인 해방신학은 진짜 병은 다루지 않고 그 증상만 공격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죄/타락이 바로 병이고, 인종차별은 그 병의 증상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의 죄



를 위한 예수님의 속죄적인 희생과 그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구원입니다. 인종차별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영접할 때 끝나게 될 것이지만, 복음 자체 내에서 구체적으로 인종차별이 다루어지는 않습니다. 흑인 해방신학이 인종차별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말미암아 생겨난 부정적 결과는 흑인과 백인 크리스천 공동체를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몸이 자, 또 스스로 머리 되시는 하나의 큰 교회로 연합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에베소서 1:22-23).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은 배격이나 인종, 국적과 관계없이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과 공동된 유대감을 가집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25).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함으로써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모든 나라로" 가라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도록 가르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목적을 가집니다 (마태복음 28:19-20). 예수님께서는 인종에 상관없이 지켜야 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마태복음 22:36-40). 갖케스투스 제공

식물로 못고치는 질병은 약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

홍천마를 잘 알면 질병이 두렵지 않다

질병과 건강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홍천마 진액 골드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극찬한 천마

■ 천마의 종류
 국내에 분포하는 천마는 크게 나누어 꽃대색이 적황색인 홍천마와 담황색인 청천마가 있다.

■ 천마의 효능과 신비
 천마는 미끈하게서 얼어지는 마옥(楛木)이라 하여 미비가 되는 증상을 다스린다고 하여 하늘 천(天) 마옥의 마(馬)를 더하여 천마(天馬)라 불려 왔으며 예부터 정통초(正統草)라 불리기도 한다. 정통초란 이름 그대로 바르게 품을 다스리는 풀이라는 뜻.

천마는 난초과이며 여러 해 살이 풀로서 자연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1년생은 5월~6월에 마치 꽃대같이 색이 옅어지고 꽃이 피우는데 꽃을 따를 때면 그 천마는 이미 속이 비어가고 있는 중이다. 천마는 5월~6월에 색을 올리고 7월이면 그 색이 시들고 말라버리기 때문에 자연산 천마는 1개월 정도만 색을 볼 수 있기에 채취 기간이 짧아 색이 막 올라오는 시기가 최적인 채취기간이다.

이때 채취하지 않으면서 늦가을에 채취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늦가을에는 색이 없어 발견하지 어려우므로 천문 일출후 들은 그 장소를 논 여기 바 푸었다가 매달 씨를 뿌려 놓았다가 자연 매달을 보고 채취한다.

천마의 색에는 알이 들어가지 않고 붓대처럼 울러와 작고 흰 꽃을 피우며 그 색도 푸른빛의 색과 분홍색의 색이 있다. 뿌리가 성장했을 시에는 마치 고무처럼 생겼으며 기로로 일정한 간격의 줄무늬를 나타낸다.

뿌리는 천마라 명칭하며, 줄기는 적천(赤乾) 또는 정통초(正統草)라 부른다.

천마는 장나무 뿌리에 버섯처럼 균근에 의해 자라는 반 기생 식물이다.

천마는 노 비질관 계통의 질병에 최고의 신약이며 특효약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혈압, 당뇨, 시중독, 디스크, 백혈병과 각종 암, 발기부전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영 문헌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자.

(동의보감)
 모든 해(毒)와 아저러은 증세에 천마가 아니면 치료하기 어렵다.(非天藥不)
 천마는 두통과 고혈압, 어지럼증에 특효약이라 할 만하다. 어지럼증은 한의학에서 '원혼'이라고 부르는데 내부 기관과 신경의 기운이 손상되어 간의 열이 위로 오르고 몸 안에 덩어리나 서로 충돌하거나 몸 속의 수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여 생긴다. 몸이 아저러고 속이 멎스꺼우며 구토가 나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심장이 약해진다. 이럴 때에 천마를 사용하면 천마는 신경의 열을 내리고 비파와 습기를 없애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향미 17주년

고객감사이벤트

이벤트 기간 : 2023. 8. 10(목) ~ 9. 27(수)까지

기존가격(₩198,000)에 제품은 기존(1+1+1=3박스) + 이벤트 선물을 추가 1박스 총 4박스(240포)를 보내드립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유지될이 하나님의 복인줄로 믿습니다.”

홍천마진액골드는 특산물 3년산으로만 추출제조하여 제품이 아주 탁월하다.

1SET 가격으로 3SET 드립니다!

1SET + 1SET + 1SET = 3SET
 80m 60팩 80m 60팩 80m 60팩 80m 120팩

198,000 + 198,000 + 198,000 = 594,000

공급가격 = ₩198,000 (부가세 별도)

우울마진 활 줄며 소비자에게 줄어드리는 직거래마케팅

우울증, 어지럼증, 만성두통, 귀속의 잡소리 등 이것 저것 다해봐도 아무소용 없으신 분께 혈액순환에 탁월한 홍천마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www.hhma.co.kr
 부산 연제구 거제동602-7
 TEL:051)853-2678

080-080-2678

국민은행 116601-04-077942
 예금주 : 이주영

안녕하세요!

홍천마를 생산하는 라파식품이 하나님의 은혜로 17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모두 고객님들의 기도와 성원덕분입니다. 라파식품은 부산 본사의 제조생산 공장을 신실 확장하고, 오직 국내 3년산 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저온 40시간 추출제조 공법으로 신제품 '홍천마진액골드'를 제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종전 제품보다 몇 배나 일등한 품질의 '홍천마 진액골드'를 기존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그동안 홍천마(진액골드)를 복용하신 교역자님, 장로님, 성도님, 수많은 고객님들께서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사신다는 체험담과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용하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교역자님과 장로님 성도들의 간정에 의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제품유통 비용을 모두 없애고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신소비자 마케팅으로써 1set(한 달분 60포)를 구입하시면 2set을 선물로 더 드려서 총 3set(3개월분 180포)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유료수 값이며 결과는 감탄의 찬사입니다. 특별히 은퇴목사님, 장로님께서는 최고의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천하를 알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식품법에 의하여 효능에 대하여 말할 수 없음이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장로님,성도님!홍천마를 통하여 더욱 건강을 지키시고 후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시면 '홍천마'를 복용해 보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쁘고 즐거운 체험을 하십시오. 사람은 혈액순환만 잘되면 무병장수한답니다. 식품으로써는 홍천마가 순환기에 최고의 건강식품 인니다. 이는 질병이든 믿고서 복용해 보십시오. 놀라운 체험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글 동의보감편에 보시면 특히 각종 암 · 중풍 · 고혈압 · 당뇨 · 만성두통 · 우울증 · 순환기질환에 홍천마가 탁월하다고 극찬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라파식품은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민교회(합동) 이현호 시무장로

“십자가 위 강도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것”

키에르케고어를 만나다

고난의 복음 (21) 과업의 존재

십자가 위에서 강도가 설교한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 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눅 23:41)”

복음에 의하면, 십자가 위에 세 명의 죄인이 있었다. 한 죄인은 죄 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죄인을 보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말한다. 하지만 다른 죄인이 이 죄인을 꾸짖으며 말한 것이 위의 설교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이다. 곧 십자가 위에 매달린 저 죄인은 남은 과업이 있는가?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간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죽는 일밖에 없다. 그런 그에게 남은 과업은 있는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로 고통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할 일이 없어 고통당하는 일 만큼 끔찍하지 않다! 예를 들어, 많은 짐을 싣고 그 짐을 끌기 위해 고통당하고 있는 말을 생각해 보라.

우리가 이런 말을 보면 말을 동정할 뿐 아니라, 말이 이 짐을 잘 끌 수 있기를 소망한다.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말을 생각해 보라. 마차를 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말, 그런데 그 순간, 당신은 그 마차에는 아무 짐도 없는 것을 본다.

인생에 남아 있는 과업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마치 짐 없는 말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고통당한다. 이 얼마나 끔찍한

절망인가! 누가 이런 과업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당하는가? 누가 이런 최대의 절망에 빠지는가?

첫째,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남겨진 인생의 과업은 없다. 그리스도인이 가끔 이런 죄를 범할 때가 있다. 오직 주를 위해 살기로 헌신한 사람이다. 그의 삶은 통째로 주님께 바쳐졌다. 하지만 하는 일마다 고난일 때, 그가 계속해서 의를 주장한다면, 짐 없는 말처럼 고난당할 수 있다. 이 일은 가장 끔찍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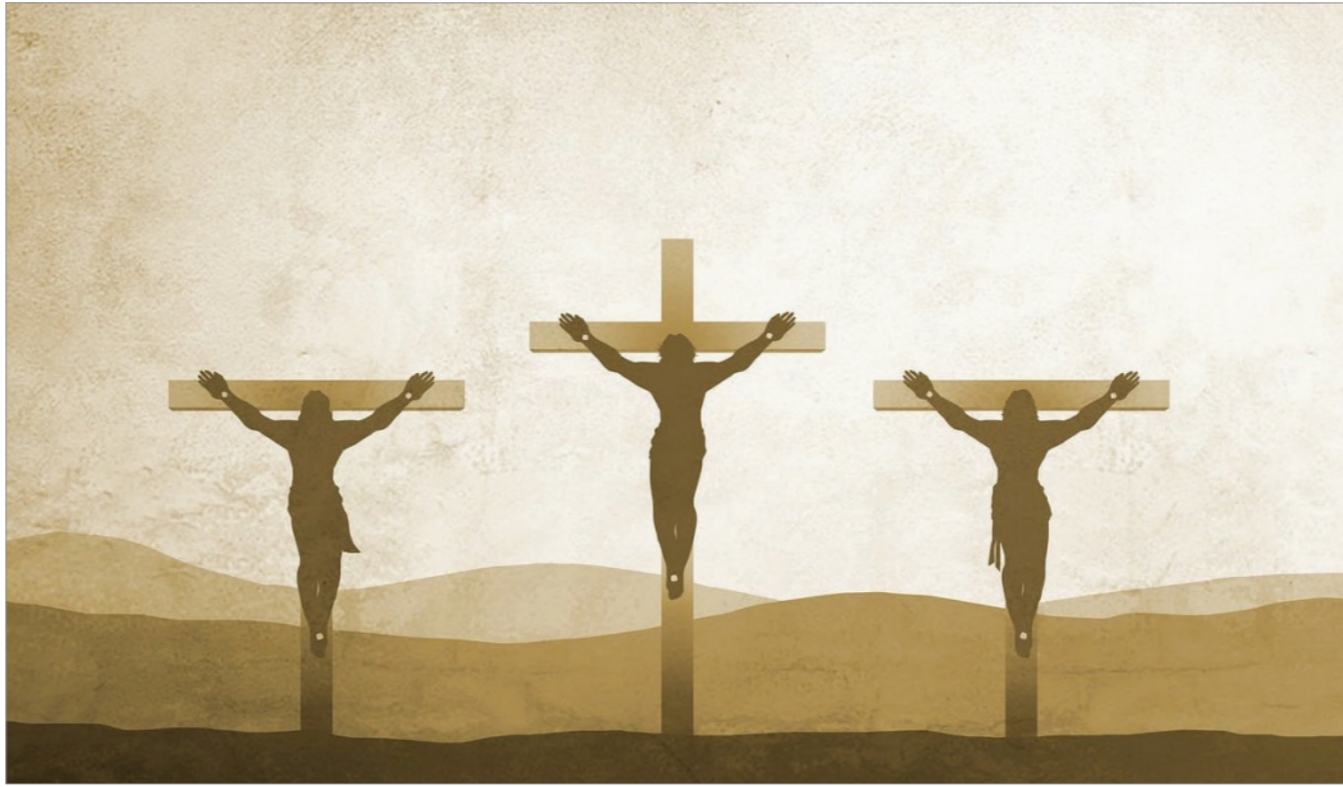
둘째,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지 않는 강도처럼, 죄인이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그에게 남겨진 과업은 없다. 이 역시 짐 없이 고통당하는 말과 같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에게는 죽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먹게 한다고 한다. 그때 간수가 와서 사형수에게 묻는다. “무슨 음식을 먹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갖다 주세요.”

죽음이 코앞에 닥쳐온 사형수에게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죽을 앞에서 음식의 선택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혹은 그가 그 상황에서 대단한 계획을 세우든 무슨 상관인가? 곧 죽게 될 터인데.

하지만 과업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기쁜 일이다. 사형수가 아제는 음식의 선택에서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 사형수가 죽음의 전날 밤 만찬으로 저녁을 즐기든, 슬픔으로 만찬을 먹지 못하든, 죽을 앞에서 먹는 즐거움은 쓸데없는 일이다. 이제 오늘은 죽는 날이다. 오늘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인을 전도할 수 있는가? 마지막 죽음을 앞둔 자에게 설교



할 수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 강도에게 마지막 설득의 말을 전할 수 있다면, 아직도 남은 과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 줄 수 있는가?

“당신은 지금까지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과업은 이제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과업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롬 14:8). 당신은 살아서 주를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를 위해 죽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남은 과업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업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 남은 과업은 후회와 회개할 수 있다. 우리에게 회개의 설교를 전하고 있는 회개하는 강도는 이런 점

에서 축복받는 자이다.

왜냐하면 죽는 일 외에 아무런 과업도 없는 그에게 십자가 위에서조차 과업이 주어진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한다. 바로 이 회개하는 강도 옆에서 죄 없이 고난당하는 분이 말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회개하는 강도는 그를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버린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겸손히 깨닫는다. 그는 회개하며 옆에 있는 죄 없이 고난당하는 분에게 말한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눅 23:42)”

회개하는 강도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초인간적인 고난과 비교할 때, 여기에서

구원을 발견한다. 이때,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돕는다.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 받았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더 이상 과업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요 19:30).

나는 회개하는 강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설교했다면 어떤 내용을 설교했을 까 상상해 본다.

“보십시오! 이것이 초인간적인 고난입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식으로 고난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어떤 인간도 어떤 식으로 고난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버림 받은 적도 없었고 버림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반면 인간은 죄인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과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업이 있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거기에 과업과 소망이 있다는 것은 위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죄인으로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모든 자에게, 심지어 나에게도, 길을 잃은 자에게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도 이 위로는 있습니다. 짐작컨대,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죽음의 고통이 이미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과업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았습니까?”

이창우 목사(키에르케고어 <스스로 판단하라>, <자기 시험을 위하여> 역자, <창조의 선물> 저자)

오늘의 예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사랑의 가교, 하나님의 돌보심

누나와 나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왔다. 누나는 시집도 가지 않고 택시 기사로 일하며 나를 어엿한 사회인으로 키워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주 운전 덤프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누나의 택시와 충돌하였고, 누나는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때 나

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자 쪽에서 내가 누나와 같이 산다면 파혼하겠다고 했고, 누나와 자신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는 최후 통첩을 해왔다.

시간이 흐르고 마음의 상처도 얼어질 즈음, 나는 누나와 고아원을 방문하기 위해 함께 외출하게 되었다. 택시마다 휠체

어에 앉은 누나를 보고는 도망치듯 지나가 버렸고, 우리 남매는 도로에 어둠이 짙게 깔리도록 택시를 잡을 수가 없었다. 몇 시간 후 택시 한 대가 우리 앞에 멈추어 섰다. 놀랍게도 운전사는 여자였다. 내가 누나를 택시에 안아 태우는 동안 그녀는 휠체어를 트렁크에 넣어 주었다. 고아

원에 도착하여 어두운 길을 가는 동안에도 그녀는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환하게 밝혀 주었다. 지금 나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두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결정한다 / 김학중

은혜 한 장



4,240번의 연구로 태어난 스킨 허그 미스트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SCIE급 논문 등재
큰열매 모자반
성분 함유



11가지 천연성분
레시피 함유



skin hug mist



QR코드 찍고
구매하러 가기

검색창에 "라파로페"를 검색해보세요.

고객상담센터 043-900-0367

쇼핑몰주소 www.rafarophe.com

신앙과 가정 염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답답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한 돌이겠습니까? 누군가는 정부 지원금으로 편한 세상 산다고 하지만 답답한 가슴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소상공인은 그들대로,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이나 직업군이 있다고 해도, 이 사회가 아우성치는 것은 답답함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미국이나

한국 할 것 없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육을 가진(sinful nature) 인간'의 죄성에서 찾아야겠지만, 근사적으로는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닌 '염치를 모르는 지도자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표리부동(表裏不貳)과 속이 같지 않은 위선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염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염치(廉恥)라는 말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체면을 차릴 줄 알거나 부끄러움

을 아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알려졌을 때에는 적어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반성하거나 체면을 차리는 것이 선비정신이고, 그것이 그 시대의 최소한의 양식(良識)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서는 미국이나 한국 할 것 없이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뻔뻔함'이 시대의 정신인 양 외쳐대고 있으니 그야말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한 말을 뒤집는 것은 구멍가게 호떡 뒤집기보다 쉽게 뒤집는데, 더 속상한 것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

럽게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짜가지 없게' 대변하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반성도 없습니다. 궤변도 잘하면 진리가 되는 시대에 사는 것이 우리를 뒤집어 놓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신이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기만이 옳은 정의'라는 것 말이지요. 공의와 공평 그리고 정의는 이미 퇴색되어서 '오직 자기편만이 유일한 공의와 정의'라고 믿는 독선에 빠진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오류를 막아설 방법이 없습니다. 한쪽의 공평과 정의는 바른 공

평의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나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함은 성경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을 말하는 디모데전서 2:9에서 '염치와 정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염치라는 말은 '사람에 대한' 수줍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끄러움이나 명예, 겸손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교회의 직분인 집사의 자격만 되어도 '염치와 정절로 단장' 하라고 하는데, 나라의 지도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과거에는 자기가 기준에 미달하면 부끄러움 줄 아는 '염치가 있

었습니다. 이제는 '왜 나를 부끄럽게 하나?'고 항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염치가 없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보면 염치없는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이, 공동체가 피곤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염치없이 대드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고통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끌어내리지 말고, 나를 말씀에 끌어올려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가치를 끌어내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교회 제공

향유옥합

영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이른 이는

모든 자기 벽을 헐고
모든 것을 드러
주님을 영접합니다.

실로 주를 진정 아는 이는
주를 다 분석하여 알 수 없으신 분임을 알고
오직 주를 영접하여 모실 뿐이라.

하나님은 물리적 생물학적 원리가 아니라
초월적인 영적 인격적 존재이시며
사랑이시기에 이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함을 알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여 영접하여 모심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 신앙에 이르는 것이다.

또한 주를 증거하는 전도자를 영접함으로
주를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라. (마 10:40)

오늘도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애절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계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20)

산마루서신 제공

성경상식

돌에서 솟아나는 물

[water from the rock]

식량은 있으나 물이 없을 때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신은 황야에서 만나(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라)라는 가적의 식량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대부분 사막이었으므로 식량만이 아니라 물도 부족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은 두 번이나 돌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기적을 연출했다.

첫 번째는 홍해가 갈라진 직후였다. 사

람들은 배은망덕하게도 모세에게 자신들을 물이 없는 황야로 데려왔으니 돌로 쳐 죽이겠다고 으르렀다. 그때 신은 모세에게 돌을 깨뜨리면 물이 솟아날 것이라고 말했다(출애굽기 17).

몇 년 뒤 여전히 황야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물이 없다며 불평했다. 그러자 신이 또 물을 주었다. 이번에는 모세에게 돌을 깨뜨리지 말고 돌에게 말을 걸어 물이 나오게 하라고 시켰다. 하지만

뜨려 물을 얻었다. 신은 모세가 돌에게 말을 걸라는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몹시 분노했다. 모세는 흑독한 징벌을 받았다. 오랜 고생 끝에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한 뒤에도 모세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민수기 20:2-13).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고개를 가우뚱한다. 신이 사소한 죄투리를 잡아 총직한 사람을 매정하게 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들뜰 출판사 제공

천로역정

벧산 (Bet Shean)

갈릴리 하구로부터 남쪽으로 약 24 Km 지점에 위치한 벧산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에서 죽은 사울 왕의 목없는 시체가 '벧산 성벽에 못박힌' 도시로 유명하다 (삼상 31:7-13). 다윗의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예도의 노래 (삼하 1:17-27) 또한 유명하다.

본래 이 도시는 이즈르엘 골짜기와 요르단 골짜기의 접경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다. BC 19세기 이집트의 자료에 언급될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지배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다. BC 13세기 이스라엘의 므낫세 지파에게 영토로 분배되었으나 철병거를 가진 가나

안의 이 도시를 정복하지 못하였다. (삿 1:27).

BC 10세기 솔로몬이 정복한 이후 (왕상 4:12) BC 3세기 헬라 사람들이 정복하여 스키토폴리스 (Scythopolis) 라 개칭되기까지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었다. 안디오쿠스 4세 (BC 175-164) 가 이 도시의 지배자로 등장한 후, 한때 이 도시는 닛사 (Nysa)라 불리웠으며, 헤스모니안 왕조의 요한 할카누스 (John Hyrcanus) 는 BC 107년 이곳에 사는 헬라인들을 유대인으로 편입시키기도 하였다. AD 66년 로마에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학살되기도 하였다.

4세기 비잔틴 시대에 이르러 벧산은 대규모의 도시로 발전하여 Palestina



Secunda의 수도로 자리를 잡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고고학적 발굴은 고대 도시인 텔 벧산 (Tel Bet Shean)과 잘 조화를 이룬 대규모의 로마-비잔틴 도시를 확인해 주고 있다. 극장과 목욕탕, 거리와 화려한 모자이크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만나월드 제공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지휘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 13:15)



이선우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福祿)을 누리거니와”(잠 13:2)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복록까지도 누리게 된다는 이 입술의 열매란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입술로 찬미함에 있어 올바른 찬미를 올려 드리도록, 지휘자들은 본인도 기도하며 이 일을 찾고 대원들을 훈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1. 입술의 열매를 맺으려면 ‘항상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곤고하고 지치는 일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괴로운 인생 여정 속에서 어떻게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무한 경쟁 시대의 각박한 사회 환경 속에서, 온갖 세상의 짐이 두 어깨를 짓누르고 사방이 우

거 싸움을 당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계속 하나님께 항상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주변 환경이 아니라 환경이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자세로 사는 것이 곧 항상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끊이지 않는 찬미가 흘러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곤고한 상태에서도 드릴 수 있는 찬미의 제사가 진정한 제사입니다.

2. 입술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 찬미가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같이 그렇게 찬미를 드리는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지휘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훈련시키는 찬양의 지도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째, 제사에는 피 흘림의 희생제물이 필요하듯 찬양에는 희생과 손실의 값이 치러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 물질, 땀, 눈물, 충성, 진정한 섬김 등을 쏟아 내

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찬미는 살찐 송아지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찬양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이런 찬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것은 신자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일이지만, 이 기도보다 사탄이 더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신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힘차게 부르는 찬미입니다. 둘째, 제사에는 희생 제물만이 아니라 향도 필요합니다. 찬양은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되는 바로 그 향입니다. 향나무에서 진액을 빼내어 만들어진 것이 향입니다. 나무나 껍질이나 잎을 태우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나라는 찬미가 곧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상달되는 향 내는 제물인 것입니다. 이런 찬미를 우리는 쉬지 말고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3. 이러한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복록’을 누리게 됩니다.

잠언 13장 2절에는 “입술의 열매를 잘 맺으면 복록을 누리다”고 하시고 잠언 12장 14절에는 “복록을 누리되 족하게 누리

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복이란 말과 축복이란 말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복록이란 말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술의 열매를 맺은 자는 복록을 누리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복록이란 말에서 ‘복’은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고, ‘록’은 육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은 옛날에 왕이 베푸는 사람들에겐 내렸던 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복, 양곡(쌀), 노비, 농토, 우마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 즉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의 복을 보장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복록을 누리길 원한다면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입술의 찬미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길 원합니다.

다윗은 하루에 세 번 새벽, 낮, 저녁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하루에 일곱 번씩’ 드렸다고 합니다(시 119:64).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활과 건강을 지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려 하고 보여주는 찬양은 노

래이지 찬양이 아닙니다. 깊이 묻어나는 영의 찬양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입술의 열매인 찬양이 쇠잔한 교회나 지휘자는, 심장의 맥박이 끊어져 가는 교회이거나 그러한 지휘자입니다. 찬양의 모습이 그 교회와 그 지휘자의 영적 건강 측정의 바로미터입니다. 인적, 물질 자원이 보잘것없는 천막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찬송이 역동적이라면 그 교회는 건강할뿐더러 미래도 밝습니다.

아무리 인적, 물질 자원이 풍부한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찬송이 신령과 진정이 없고 찬송이 참체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병들어 있고 미래는 매우 비관

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지휘자는 입술의 열매를 맺기까지 정체성 있는 찬미의 제사를 씀 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피 있는 제사와 같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향내 나는 찬양을 드리고 매일 매일 입술의 열매를 잘 맺어 복록을 누리는 지휘자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선우

미국 유니온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작곡과 합창지휘를 전공하고 바이올라 대학원에서 지휘과정을 수학하였다.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21세기한국교회음악연구협회이사장을 역임하였고, 한국선교합창단 총연합회이사장, 한국교회음악협회등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교회음악출판협회주최 합창세미나인 (씨칭세미나)의 주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백석예술대와 백석콘서바토리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96년부터 합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이노스합창단을 창단하여 지금까지 사역하며 백석대학교교회 사무장으로, 시온찬양대의 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조율(tuning)의 삶과 신앙



최규환 목사

연주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점검할 일은 조율(튜닝)이다. 조율이 안 되면 연주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연주회를 앞두고 오랜만에 본당의 피아노를 조율했고, 오보에 주자를 중심으로 전체 단원들이 라(A)음에 자기 음을 맞추는 조율의 절차를 거쳤다. 그만큼 조율은 음악의 기본이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 ① 조율은 타인을 위한 전적 배려다. 혼자 연주를 한다면 구태여 조율을 하지 않아도 된다.
- ② 조율은 화합을 위한 작업이다. 협연을 할 때는 타인의 소리에 나의 소리를 맞추려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섬세하고 민감하게 소리를 내는 이유는 화음을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 ③ 조율은 아름다움을 위한 기술이다. 서로 다른 파트의 음과 소리가 하

나를 이룸은 음악의 신비다. 화음을 이루지 못하는 두 가지의 소리는 선율이 아닌 소음일 뿐이다. ④ 조율은 바쁜 걸음을 내딛기 위한 속고르기다. 본격적인 대장정에 돌입하기 전 거친 숨을 멈추고 조용히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⑤ 조율은 불협화음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저마다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절제하고 약속하여, 정한 소리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조율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리라.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공동체를 이뤄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 꾸러가야 하기 때문이요, 우리는 독주의 삶이 아닌

◆최규환 목사

가락중앙교회 담임목사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및 대학원과 실천신학대학원을 수학하고 수필집 [생. 삶. 섬티]를 출간했으며 자작곡 음반 [삶 그리고 신앙], 자작곡 부활절 칸타타집 [최후의 만찬]을 발표한 목회자이다.

합주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내 곁의 사람과 원하던 원치 않던 화음을 이뤄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저마다 독특한 개성은 인정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하나의 소리로 모아져야 하고, 행여 나로 인한 불협화음으로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하며, 빠르게 걷는 삶이 아닌 바르게 걷는 삶을 위해 자신의 거친 숨을 가라앉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를 위한 자기희생적인 삶을 통해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만이 살아남는다는 사명을 기쁨으로 여겨야 비로소 조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조율은 힘든 작업이기는 하겠으나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피아노 연주시 근육이완(Rel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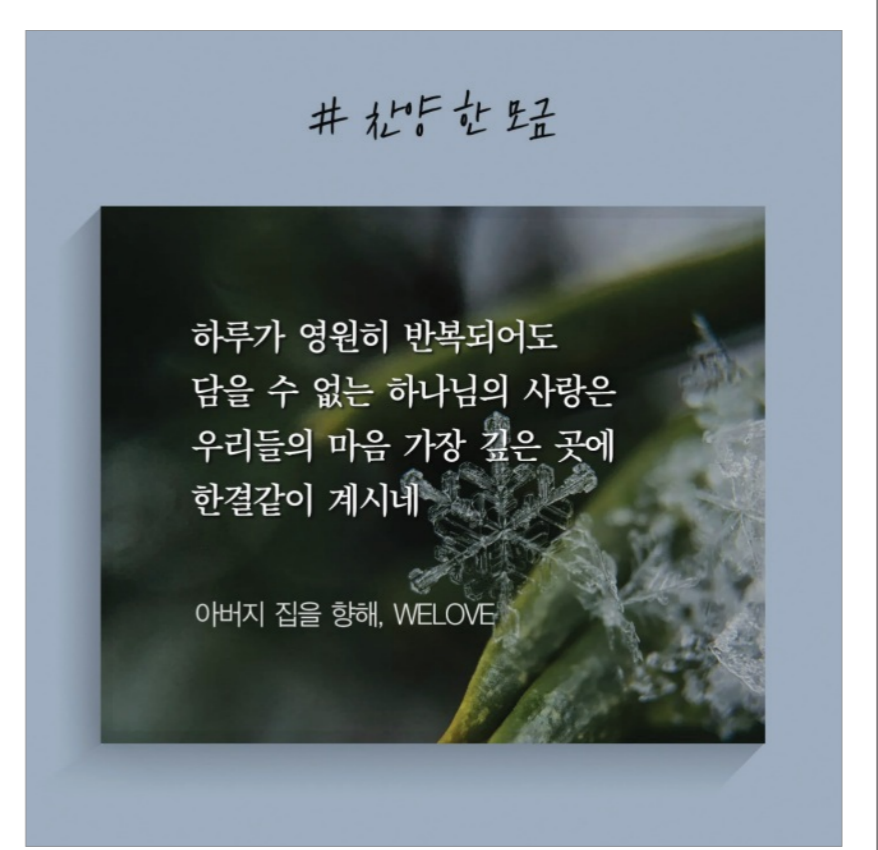
김준희 교수

피아노를 칠 때 릴렉스(relax, 긴장 완화)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경직된 상태로 건반을 치게 되면 소리가 좋지 않을뿐더러 팔 근육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지요. 피아노는 건반에 연결된 나무 해머들이 줄을 쳐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르테(f)를 표현할 때 완력으로 무조건 센 소리를 내려고 해서 안 되며, 텐션이 있는 거친 소리(harsh sound)가 아니라 탄력이 있는 동글고 짙은 소리(full sound)를 내기 위해 노력해

◆김준희 교수

현재 백석 예술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저서로는 『반주자를 위한 찬송가 즉흥연주곡집 1, 2, 3』, 『생생 피아노 반주법-대화로 배우는 교회음악반주』가 있다.

야 합니다. 혹은 팔에 무리가 온다면 복을 복체로 친 후 힘을 놓아줄 때의 동작을 상상하며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NFL 전설’ 짐 켈리 침례 받아... “내 인생 최고의 결정”

미국프로풋볼(NFL) 명예의 전당 헌액자이자, 전 버펄로 빌스 소속의 쿼터백 짐 켈리(Jim Kelly)가 침례식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990년대에 팀을 4번의 슈퍼볼 출전으로 이끌었던 그는 지난 21일 수영장에서 세례를 받는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올해로 63세인 그는 “나는 말로 많이 표현하지 않는 편이며, ‘기독교 용어(Christianese)’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다. 내가 아는 건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셨다는 것뿐”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헌터(내 아들)가 천국으로 간 후, 나는 너무나 길을 잃고 헤맸고 하나님께 화가 났다”며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사랑하셨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덧붙였다.

켈리의 아들 헌터(Hunter)는 크라베병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으로 인해 2005년 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켈리는 2002년 NFL 명예의 전당 수락 연설에서 아들에게 헌사를 바쳤다.

켈리 또한 위턱에 편평상피세포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2018년에 다시 재발하여 추가 수술을 받았다.

그는 SNS에 올린 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도록 도와주셨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독교인이 된 것은 내 생애 동안 내린 최고의 결정이다. 내가 주님께 더욱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의 타 임기는 완벽하다”라며 “마침내 나는 세례를 받았다.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다. 특히 오랫동안 나를 위해 기도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들과 교회 남자 소그룹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또한 자신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격려해 준 아내 질 켈리(Jill Kelly)와 두 딸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끝으로 켈리는 “헌터에게 감사한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네 덕분이야”라고 글을 남겼다.

아내 질도 남편의 침례식 장면이 담긴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그녀는



전 버펄로 빌스 쿼터백 짐 켈리(왼쪽)가 2023년 9월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녹화된 영상에서 침례를 앞두고 있다. ©짐 켈리 인스타그램

“2023년 여름 최고의 순간”이라며 “짐의 티셔츠에는 ‘하나님은 실재하신다(God’s Real)’라고 적혀 있다. 그분은 살아계신다”라고 썼다.

이어 “나는 남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30년 넘게 보아왔다”며 “하나님은 실존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긍휼이 많고, 권세가 있으

시고, 은혜롭고, 선하고, 자비로우시며, 용서하시며, 훨씬 그 이상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했다. 질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이상이시며, 그분은 모든 것”이라며 갈라디아서 3:26-27, 마태복음 28:19-20, 사도행전 22:16을 인용했다.

또 다른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질은 세례와 남편의 신앙 선언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그녀는 “내가 세례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바는 이것이다. 세례는 성경적”이라며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시다. 그분은 지상 사역을 시작하기 전, 아기 때에 주님께 바쳐지셨고 성인이 되어 세례를 받으셨다. 이는 순종의 행위”라고 덧붙였다.

질은 “이것은 마음의 내적 변화를 겉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오는 마음의 변화”라며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하나로 묶는 믿음의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유진 김 기자

유도 안바울, 부상과 석연찮은 판정에도 “하나님께 감사”

유도 안바울 선수 등을 비롯해 크리스천 선수들이 제19회 항저우아시아게임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중국 저장성 항저우 샤오산 린푸 체육관 안바울은 제19회 항저우아시아게임 유도 남자 66kg급 경기에서 오비드 제보프(타지키스탄)를 업어치기 절반승으로 꺾고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기 직후 안바울은 그대로 매트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안 선수는 허벅지 뒷근육(햄스트링) 부상을 입었지만 부상 투혼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사실, 안바울 선수는 준결승에서 일본의 다나카 료마 선수와 연장(골든스코어) 접전 끝에 아쉬운 패배를 했다. 지도(반칙) 2개씩을 주고받은 두 선수는 연장에 들어갔고, 다나카는 소극적인 플레이로 일관했으나 심판은 지도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다나카는 경기 후반 안바울의 다리를 잡는 등 반칙으로 보이는



항저우 아시아게임에서 안바울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왼쪽에서 세번째. ©안바울 인스타그램

플레이를 펼치기도 해 안바울 선수가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안 선수는 연장전 5분 49초에 지도를 받아 반칙 패했다. 안바울 선수는 그의 인스타그램에서 “2022 항저우 아시아게임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과 결에서 많은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저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주시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다. 이상진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5:00	00 CTS 새벽예배 40 사복음서 50 신앙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조건희 목사의 찬양과 나눔	00 생명의 삶 2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00 은혜의 시간 30 TV 설교/근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요셉의 지혜를 알아라	00 말씀 관통 이음 목사의 성경 맥잡기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오영택 목사(하늘비전교회) 30 생명의 말씀/성령의 새벽방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추석특집 세계성지대기행	0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40 [말씀]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00 TV 설교/[생명의 양식]성문교회 고동훈 목사:마지막까지 살아서 사명을 감당할 제자 요한 30 주만찬 50 오늘 만나는 QT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새이덴강단
7:00	00 CTS 뉴스 2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35 생명의말씀-박성진 목사(포항장성교회) 50 생명의 말씀-이창교 목사(창원상남교회)	20 말씀의 센터 전주시온성교회 황세형 목사 50 비전설교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	20 [말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30 TV 설교/주남기쁨의교회 김대조 목사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50 노변담화
8:00	20 신앙예배 30 CTS 두란노 성경교실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출판복음 50 비전설교 선한목자교회 김다위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정감신 목사(예수향교회)	20 CBS성서학당:갈릴리 산책 18강 - 조성욱 목사 "믿음으로 여는 하나님 나라"	00 성지가 좋다 30 비전메시지 - 은혜드림교회 최민선 목사
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힐링스토리	20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미니다큐 30 2023 천사후원방송 복음스튜디오 등불켜기	0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 40 2023 마리아행진 (광야의 행)	10 새롭게 하소서	0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30 정서영의 포토에세이 4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10:00	00 장경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 30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00 2023 천사후원방송 복음스튜디오 등불켜기	20 [말씀] 임재경 목사(서부성결교회)	00 오직 주님만 슬로 30 CBS 뉴스	00 선교는 지금 2
11:00	00 백세인생 20 7000마라톤 50 [생방송] CTS 뉴스	00 2023 천사후원방송 복음스튜디오 등불켜기	00 은누리교회 수요여성메시지 40 저스트 텐 미닛 (달빛마을) 50 크리스찬의 슬기로운 직장생활	00 울포원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50 비전메시지 - 대일교회 최대한 목사
12:00	30 생명의 말씀-유영만 감독(하늘중앙교회)	30 말씀의 센터 광주청사교회 백운영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00 TV 설교/든든교회 장항희 목사 30 TV 설교/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	20 비전메시지 -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 50 말씀의 창 - 마리아타교회 이영은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이승희 목사(대구반야월교회) 30 CTS 두란노 성경교실	*00 말씀의 센터 군포사림교회 성관용 목사 30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20 교회가는 길	2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30 말씀의 창 - 구례제일교회 김영서 목사
14:00	00 [생방송] 콜링갯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행복플러스 30 말씀의 센터 화광교회 윤호균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레디온	00 TV 설교/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30 새롭게 하소서	00 백석의 센터
15:00	40 7000마라톤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큐	0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 40 생명의 삶	20 영혼의 양식/양친교회 김동인 목사 30 TV 설교/한성교회 도원욱 목사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50 정서영의 포토에세이
16:00	10 신앙예배 2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30 생명의 말씀-김성홍 목사(한마음교회)	00 2023 천사후원방송 복음스튜디오 등불켜기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케빈 드영의 창세기 5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00 CBS성서학당:골로새서 1장 - 송태근 목사 "얼굴 없는 성도들" (본문 - 골로새서 1:1-8) 50 CBS 교회소식	00 내 삶의 행복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7:00	00 사람의 시간-오정현 목사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마라톤	00 2023 천사후원방송 복음스튜디오 등불켜기	3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00 CBS 토론 40 크리스천칼럼 5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00 말씀의 창 - 동일로교회 김오용 목사 3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18:00	00 생명의 말씀-김록이 목사(그레이스윌링교회) 30 신앙예배	00 2023 천사후원방송 복음스튜디오 등불켜기	10 3만추 5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	10 잘 믿고 잘 사는 법 30 TV 설교/남양주한마음교회 남상진 목사	30 말씀의 창 - 선교중앙교회 객대권 목사
19:00	00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30 광림의 시간-김정석 감독	00 여의도순복음교회 수요예배 생방송 이영훈 목사	30 잇신의 서재 50 CGN 월드뉴스	00 TV 설교/영광제일교회(이기용 목사) 30 TV 설교/영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	00 말씀의 창 - 인천제2교회 노원석 목사 30 명성교회 수요기도회
20:00	30 생명의 말씀-주진 목사(세한교회)	00 말씀의 센터 성천교회 오원호 목사 30 말씀의 센터 김일교회 차영아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풍당 비디오키예 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복음강단 - 서울은혜교회 김태규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사복음서	00 말씀의 센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30 다큐 더 로드 50 GOODTV 뉴스	00 청동영광교회 주일예배	00 CBS성서학당:갈릴리 산책 18강 - 조성욱 목사 "믿음으로 여는 하나님 나라" 50 CBS 뉴스	1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
22:00	10 내가 매일 기쁘게	10 2023 천사후원방송 복음스튜디오 등불켜기	10 저스트 텐 미닛 (달빛마을) 20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10 새롭게 하소서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3:00	00 CTS 두란노 성경교실 30 장경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	00 2023 천사후원방송 복음스튜디오 등불켜기	00 J.D. 그리어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00 주만찬 20 오늘 만나는 QT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50 정서영의 포토에세이
24:00	00 콜링갯 50 하나님의 승결	00 2023 천사후원방송 복음스튜디오 등불켜기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 비전특강	00 CBS 아카데미 숲 50 성경꿀팁	0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00	10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40 CTS 특선다큐	10 GOODTV 오늘의 예배 40 여의도침례 수요 필 워십	00 [말씀] 이웅조 목사(갈보리교회) 40 [말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교회)	00 다니엘 기도회 40 CBS비전특강/CBS 비전특강	00 한소양 비전워십
2:00	40 백세인생	00 명실교 남서중양교회 피종진 목사 30 이음 목사의 성경의 맥	20 [말씀] 김형식 목사(지구촌교회)	30 TV 설교/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00 말씀의 창 - 뉴욕센트럴교회 김재열 목사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0	00 장경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 30 Let's talk in English	00 말씀의 센터 순복음측복교회 오영대 목사 30 말씀의 센터 순복음금정교회 김형근 목사	00 [Global Sermon] R.T. Kendall's Word & Spirit 30 [말씀] 류용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00 울포원	00 사제의 재발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김선도 감독 20 오늘의 양식 30 TV새벽예배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예능교회 조건희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박성근 목사(남주새누리교회)	00 CBS성서학당:출애굽기 28장 - 김기서 목사 "공평한 세상을 향하여" (본문 - 출 23:1-33) 50 CBS 교회소식	0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2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5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객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